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4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박성정 · 문미경 · 장명선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책임자 : 박 성 정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문 미 경 (본원 연구위원)
장 명 선 (본원 객원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이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 등은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 여러 부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진 여성으로서의 특성과 어려움은 아직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정서적 불안정, 직업능력 부족, 자신감 부족,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언어이해와 문화적응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다문화여성들이 겪는 문제도 역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정책의 경험과 전략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개발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연구결과가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I. 연구의 배경

전체 북한이탈입국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전체의 약 70%에 달하고 2006년 이후 70%를 넘어 2010년 75.7%에 이른다. 여성들의 탈북 사유는 보다 나은 삶의 기회(63.7%)를 찾고 경제적 어려움(59.4%)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다. 연령으로는 30대가 약 3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가 약 27%, 20대 약 19%로 20~49세가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재북 직업별로는 무직부양(54.5%)과 노동자·농장원(36.3%)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고, 학력은 고등중학교 학력이 74.6%로 가장 많다. 이는 대체로 학력이 낮고, 직업경력이 없거나 단순노무직 경력이 대다수인 북한이탈여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취업시켜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어려운 정책과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일했던 여성들도 2.6% 정도 있으나, 전체 북한이탈여성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그 학력과 경력이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데 제약이 크므로, 결국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실태와 문제를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II.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 실태

북한이탈여성들은 현재 제조업(24.4%)과 음식숙박업(23.3%), 서비스업(11.8%)에 단순노무직·공장노동자(32.4%)와 판매·서비스직(26.5%)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여성 평균근로소득은 119만원으로(허선행 외, 2010), 대체로 노동시장의 하위층에 편입되어 있다. 취업을 위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보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훈련을 받을 시간 부족, 교육용어 및 내용 이해의 어려움, 전용훈련과정 부족, 보육문제 등으로 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매우 높으며, 직업기술교육 외에 언어소통

교육, 인간관계교육, 직업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이나 다문화여성들과 일정 부분 어려움이 공통되지만, 일면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으로 오면서 단절되었고, 자본주의사회로 오면서 문화단절도 겪게 된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일과 가정 양립 문제, 보육문제, 연령 제약 등은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해당한다. 정서 불안과 자신감 부족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보육의 어려움은 더 크며, 취업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연령 차별 외에 북한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언어이해력 부족, 훈련과 생계 병행의 어려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기 어렵고,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및 기본지식 부족, 숙련도 부족, 취업 가능 직종의 제약, 편견으로 인한 취업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 훈련기관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해도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훈련과정을 폐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신뢰하여, 그들에게 잘 알려진 소수 훈련기관들 외에 다양한 훈련기관과 과정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현재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훈련과 취업에 관한 정보와 기회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부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정책 방향이 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전환되고,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과 하나센터를 통해 기초직업교육과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탁훈련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

보화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는 인권보호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하나원 내에서의 직업훈련은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도 통일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은 과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으나, 최근 특정 직종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존 직종탐색 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1인 1직종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환하였는데, 통일부의 이러한 훈련정책 변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축소하고 제한된 직종에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북한이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관련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생각된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북한이탈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초기 입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훈련과정이 개발되어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언어이해 수준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배려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당장의 취업 요구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경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세워야 하며, 직장에서의 성공적 적응에 필수적인 언어소통과 문화적 이해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 하나원 내 훈련·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보
- 하나센터와 고용센터, 새일센터의 연계 강화
- 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 지원기능 강화

☐ 하나원 교육단계에서의 여성 직업체험 다양화 및 새일센터 연계

- 하나원 내에서의 여성 유망직업 체험 기회 확대
- 여성직종 훈련 및 직업상담에 새일센터의 참여

- 진로취업지도 시 여성전문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하나센터의 여성 훈련 ·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 훈련기관, 프로그램 설명회에 새일센터 참여 필수화
- 새일센터에서의 여성훈련상담 필수화: 파견 상담
- 훈련계좌 발급을 위한 상담 강화

☐ **하나센터와 새일센터 연계로 훈련생 모집 협력체제 구축**

- 여성가족부와 통일부(하나원), 새일센터와 하나센터의 MOU 체결
-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 취업지원인프라와 하나센터의 공식연계망 구축

☐ **공공여성훈련기관(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훈련 서비스 전문화**

- 새일센터 북한이탈여성훈련 시범사업으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대상 북한이탈여성 이해 및 상담교육
- 북한이탈여성출신 상담사 채용

☐ **북한이탈여성 전용 훈련과정 운영 및 학습환경 조성**

- 전용 훈련과정 운영
- 중장기 훈련과정 개설
- 북한이탈여성친화적 훈련환경 조성

☐ **지원금 수령을 최대화할 수 있는 훈련조건 충족**

- 하나원, 하나센터 훈련과 합산하여 최소 500시간 이상인 훈련시간 편성
- 자격취득 장려금과 우선선정직종훈련 장려금 취득 가능한 훈련과정 운영
- 훈련수당, 기초생계비 수령이 가능한 훈련 제공

☐ **현장 직업체험 및 사후관리교육 연계**

- 훈련과정에 업무적응, 숙련을 위한 인턴과정 포함

- 취업 후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적응교육 및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 지원**

- 새일센터의 일·가정 양립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 보육기관 정보 제공

☐ **고학력 북한이탈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전문분야별 경력 재교육 방안 마련
- 대학평생교육원, 새일센터의 고학력 북한이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개발
-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 **훈련과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연계한 종체적 생활서비스 제공**

- 훈련·취업 상담과 함께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 상담사 재교육
- 가족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기관 등에 연계

☐ **언어교육, 문화적응교육 병행**

- 북한이탈여성 계좌제 훈련과정으로 언어와 문화적응교육 승인
- 직업훈련과정에 직장문화 적응교육 포함
-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북한이탈여성 언어교육프로그램 개설

☐ **이미지 개선과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성공사례 홍보**

- 북한이탈여성 취업 및 자립성공 사례집 발간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배포
- 다문화교육에 북한이탈주민 포용 교육 강화
- 여성가족부의 관심과 캠페인

목 차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가. 연구 내용 | 4 |
| 나. 연구 방법 | 4 |
| 2. 선행연구 | 5 |
| II.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 현황 | 9 |
| 1. 북한이탈여성 현황 | 11 |
| 가. 입국자 현황 | 11 |
| 나. 연령별 현황 | 13 |
| 다. 재북 직업별 현황 | 14 |
| 라. 재북 학력별 현황 | 15 |
| 마. 국내 거주지 현황 | 16 |
| 2.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17 |
| 가. 경제활동참가 | 17 |
| 나. 업종별, 직종별 취업 현황 | 19 |
| 다. 취업 형태 | 20 |
| 라. 취업 경로 | 21 |
| 마. 직장생활의 애로 | 21 |
|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요구 | 22 |
| 가. 취업 기준 및 취업지원 요구 | 22 |
| 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 | 23 |
| 다.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및 훈련 시 애로점 | 24 |
| 라. 직업훈련 요구 | 25 |

| | |
|----------------------------------|----|
|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취업지원 관련 정책 | 27 |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 29 |
| 가. 정착금 지원 | 32 |
| 나. 주거 지원 | 33 |
| 다. 교육 지원 | 34 |
| 라. 사회보장 지원 | 35 |
| 마. 거주지 보호 | 37 |
| 바. 여성특화 정책 | 38 |
|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 42 |
| 가. 통일부 | 42 |
| 나. 고용노동부 | 53 |
| 다. 행정안전부 | 56 |
| Ⅳ.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 61 |
| 1.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 64 |
| 가. 기초 취업역량 부족 | 64 |
| 나. 훈련 참여 및 성과의 미흡 | 66 |
| 다. 훈련기관 접근성의 제약 | 68 |
| 라. 취업 및 취업유지의 어려움 | 70 |
| 2. 소결 | 73 |
| Ⅴ. 결론 : 훈련과 취업지원 효율화 방안 | 75 |
| 1. 요약 | 77 |
| 2. 정책과제 | 79 |
| ■ 참고문헌 | 89 |
| ■ Abstract | 91 |

표 목 차

| | |
|----------------------------------------------|----|
| <표 II-1>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 | 12 |
| <표 II-2> 성별 탈북 사유 | 13 |
| <표 II-3> 연령별 입국자 현황 | 13 |
| <표 II-4> 성별/연령별 현황 | 14 |
| <표 II-5> 재북 성별/직업별 유형 | 14 |
| <표 II-6> 재북 성별/학력별 입국 현황 | 15 |
| <표 II-7> 지역별 거주 현황 | 16 |
| <표 II-8>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17 |
| <표 II-9>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8 |
| <표 II-10>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직업훈련 강화 내용 | 26 |
| <표 III-1> 정착지원 단계별 정책목표 및 관련 기관 | 31 |
| <표 III-2> 정착금 지급 내용 | 33 |
| <표 III-3> 주거 지원 내용 | 34 |
| <표 III-4> 교육 지원 내용 | 34 |
| <표 III-5> 교육 관련 정책 | 35 |
| <표 III-6> 사회보장 지원 내용 | 36 |
| <표 III-7> 상담·의료 관련 정책 | 37 |
| <표 III-8> 거주지 보호제도 내용 | 38 |
| <표 III-9> 부처별 북한이탈여성 특화정책 | 41 |
| <표 III-10> 정착장려금 제도 | 46 |
| <표 III-11> 장려금 지급 현황 | 46 |
| <표 III-12>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 47 |
| <표 III-13> 초기집중교육 예시 | 48 |
| <표 III-14> 사후지원사업 예시 | 49 |
| <표 III-15>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의 북한이탈여성 기초직업적응훈련 실적 ... | 54 |

| | |
|--------------------------------------|----|
| <표 III-16>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직업훈련 현황 | 55 |
| <표 III-17> 훈련 및 취업 관련 정책('11년) | 59 |
| <표 IV-1> 피면담자 인적 사항 | 63 |

그 림 목 차

| | |
|-----------------------------------------------------------|----|
| [그림 II-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 12 |
| [그림 II-2]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현황 | 15 |
| [그림 II-3]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성별/학력별 현황 | 16 |
| [그림 II-4]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0) | 17 |
| [그림 II-5]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0년) | 18 |
| [그림 II-6]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종사 직업 | 20 |
| [그림 II-7]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별 직장생활의 어려움(복수응답) | 22 |
| [그림 II-8]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별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요구 (복수응답) | 23 |
| [그림 II-9]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별 직업훈련 애로점(복수응답) | 25 |
| [그림 III-1]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흐름도) | 30 |
| [그림 III-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개요 | 56 |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선행연구 | 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¹⁾의 수는 지난 199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터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주민이, 2006년부터는 2,000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현재 2만명이 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입국자 가운데는 남성이 많았지만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최근 이 비율은 더 급증하여 2006년 이후는 70%를 넘어 80%에 다가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서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복지지원보다는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의 액수를 하향시키는 대신에 정착장려금을 지급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을 장려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어서 취업을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나 탈북자라는 편견, 나이, 발음과 억양문제, 직무능력의 부족, 직업의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부담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김석향 외, 2009). 또한 탈북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우울함,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정치이념을 가진 체제에서 성장한 탓에 문화적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는 물론 언어소통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인권침해와 정서적 불안정은 더욱 심각하며, 자녀양육을 도와 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탈북자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 대신 '05.1.9부터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진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용어의 부자연성과 재외탈북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08.11.21부터 이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통일부가 발표하였다.

4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앞으로 북한이탈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 중 다수가 여성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그들의 직업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 연구 내용

- ☐ 북한이탈여성 특성 및 취업 실태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 경제활동 및 취업실태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경험 및 요구
- ☐ 북한이탈여성 정착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
 - 사회정착지원 정책
 - 부처별 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 ☐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의 문제와 지원 요구
 - 훈련 및 취업의 문제
 - 훈련 및 취업 개선 요구
- ☐ 북한이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나. 연구 방법

- ☐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정책관련 자료의 분석

□ 심층면담

-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기관 관계자
- 북한이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기관 관계자

□ 전문가 자문회의

- 북한이탈여성 현황 및 문제에 관한 이해
- 정책 개발

2.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성별 data를 포함한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최근의 연구로는 최대석 외(2010)의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과 훈련취업을 최근 연구한 것으로는 김석향·김미주·최영실(2009)의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장명선·이애란(2009)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장미혜·김난주·김화순(2010)의 「탈북여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개발」 연구 등이 있다. 연구내용 가운데 훈련과 취업 관련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최대석·김화순·박영자·이혜경·강금봉(20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2000-2009 입국자집단 표집)를 분석한 결과, 근로가능인력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참가자는 46.5%에 불과하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59.3%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57.1%는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는데, 입국 이후 5년의 보호기간이 지난 사람 중 45.6%가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률이 매우 낮다. 북한에서의 경력과 학력은 한국에서의 취업에 정적

6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사업체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기업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선호되었으나 남한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고 있었다.

전체 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고,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 이용 이탈주민은 근로가능 이탈주민의 16.2%에 불과하였다. 하나원의 단기 집중훈련과 형식적인 훈련상담으로는 직업능력개발이 어렵다고 보고, 지역사회 편입 이후 기초적응훈련, 일반훈련과정, 재직자훈련과정을 체계화하고, 하나센터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국 직후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대신 취업활성화프로그램 참가비(구직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김석향·김미주·최영실(2009).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새터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체 새터민의 80.2%인데, 여성이 85.0%로 남성의 72.9%보다 높다. 여성새터민의 약 41%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반면 남성새터민은 약 70% 가량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새터민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그들은 “맞춤한” 훈련기회를 찾는 것도 어렵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직하고 싶은 직종은 사무직이 많고, 북한에서 자신이 종사하던 직업이나 전공과 연결된 분야의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싶어 했다. 구직단계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 나이, 능력 부족을 들었고, 편견 해소, 연령제한 완화, 탈북여성 적성에 맞는 교육 및 취업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인턴십 교육을 요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언어교육, 여성새터민 상담사, 사무능력교육, 대인관계교육, 취업 후 직장정착지원,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특화직종으로 여성새터민 상담사, 한복사·재봉사·수예사, 북한전통음식조리사, 새

터민 특화형 방과후교사, 새터민 특화형 그룹홈지도자 양성 등을 추천하였다.

- 장미혜·김난주·김화순(2010). 「탈북여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재의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초기정착인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해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문직 고학력 여성들은 교육·의료·보건·과학기술·예술 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알선하고,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사 경력을 가진 여성들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인력으로 양성하고, 노동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40대 이상의 근로취약계층 대상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장명선·이애란(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여성 조사에 의하면, 재북 시 직업유형이 노동자 38.0%, 무직부양이 52.0%이고, 여성 비경제활동사유는 건강문제 38.4%, 육아가 2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가 북한에서 취업경험이 있고, 직업은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사무직·일반기술직, 공장노동자, 파출부, 기타 육체노동자, 자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일자리는 전단지나 북한친구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용상태는 불안정하다.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63.1%가 직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하였다. 향후 직업훈련요구는 63.8%로 높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지원 정책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자원과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교육, 취·창업지원, 차별과 편

8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견 해소, 상담, 자활프로그램, 직무소양교육, 의식교육, 인턴제도, 적합직종 개발, 1사 1인 채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연계, 조기정착 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제안하고 있다.

II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 현황

| | |
|--------------------|----|
| 1. 북한이탈여성 현황 | 11 |
| 2.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 17 |
|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요구 | 22 |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현황과 경제활동 실태, 그리고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접 조사를 하는 대신 최근 수행된 연구 결과를 재분석하였다²⁾. 일반적인 실태에 관한 자료로는 통일부의 내부자료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허선행·임강택·서윤환(20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는 2000년 이후 입국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전국 거주(제주도 제외) 북한이탈주민 1,200명을 조사한 것이다. 서윤환·이용화(2011.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조사는 광역별로 조사패널을 구성하여 3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5년 12월 첫 조사 이후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들은 일반 경제활동 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제시하고 있고, 성별 분석을 위한 정보와 직업훈련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실태에 관한 자료로는 장명선·이애란(20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방안 연구」를 주로 참고하고 최대석 외(2010. 고용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도 참고하였다. 장명선·이애란의 연구³⁾는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성별·연령별·학력별·남한 거주기간별로 상세한 성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최대석 외의 연구⁴⁾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서 조사항목별로 기초적인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북한이탈여성 현황

가. 입국자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1천 명 이상, 2006년 이후부터는 2천 명 이상이 입

2)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자료가 2009년에서 2010년 말의 최근 현황을 제시하고 있어 실태 파악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2009.10. 서울거주 북한이탈여성 426명 조사

4) 2009.12.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중 20-59세 근로가능인구 413명 조사

12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국하였으며 2009년에는 거의 3천 명 정도가 입국하여 2010년 말 20,360명에 이르고 있다. 2001년에는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총 수가 2천 명이 안되었으나 10년 후인 2010년에는 10배 이상이 되어 2만 명을 넘은 것이다. 지금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69%에 이르고 있으며, 매해 입국하는 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2년에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이후에는 75% 이상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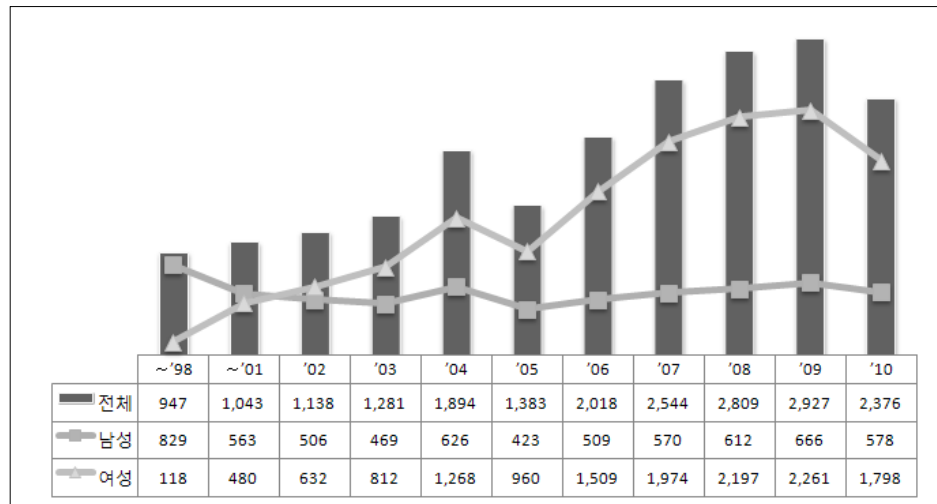
〈표 II-1〉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비율

(단위: 명, %)

|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합계 |
|----------|------|-------|-------|-------|-------|-------|-------|-------|-------|-------|-------|--------|
| 전체 | 947 | 1,043 | 1,138 | 1,281 | 1,894 | 1,383 | 2,018 | 2,544 | 2,809 | 2,927 | 2,376 | 20,360 |
| 남성 | 829 | 563 | 506 | 469 | 626 | 423 | 509 | 570 | 612 | 666 | 578 | 6,351 |
| 여성 | 118 | 480 | 632 | 812 | 1,268 | 960 | 1,509 | 1,974 | 2,197 | 2,261 | 1,798 | 14,009 |
| 여성 비율 | 12.5 | 46.0 | 55.5 | 63.4 | 66.9 | 69.4 | 74.8 | 77.6 | 78.0 | 77.2 | 75.7 | 68.8 |

자료: 통일부(2011)

(단위: 명)



[그림 II-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탈북 사유는 남녀 모두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가 가장 많고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표 Ⅱ-2〉 성별 탈북 사유

(단위: 명, %)

| 구분 | 사례 수 | 북한당국의 탄압 | 가족/지인 문제로 인한 탄압 | 경제적 어려움 | 가족을 찾아 | 보다 나은 삶의 기회 | 기타 |
|----|------|-------------|-----------------------|------------|--------|----------------|-----|
| 남성 | 132 | 22.7 | 18.2 | 41.7 | 18.2 | 55.3 | 9.8 |
| 여성 | 281 | 13.2 | 16.7 | 59.4 | 15.3 | 63.7 | 4.6 |

* 복수응답

자료: 최대석 외(20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나. 연령별 현황

연령별 입국 현황을 보면 30-39세가 32.0%로 가장 높고, 20-29세가 27.5%, 40-49세가 15.7%로, 청·장년층(20세-49세)이 전체입국자 중 75.0%를 차지하여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국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3.9%, 40대 26.9%, 20대 19.1% 순으로 나타난다.

〈표 Ⅱ-3〉 연령별 입국자 현황

(단위: 명, %)

| 구분 | 0-9세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전체 |
|----|------|--------|--------|--------|--------|--------|-------|--------|
| 인원 | 793 | 2,381 | 5,644 | 6,575 | 3,220 | 989 | 937 | 20,539 |
| 비율 | 3.9 | 11.6 | 27.5 | 32.0 | 15.7 | 4.8 | 4.6 | 100.0 |

주: 입국시점 기준, '11.1 현재

자료: 통일부(2011. 1)

〈표 II-4〉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

| 구분 | 0-9세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전체 |
|----|--------------|--------------|-----------------|-----------------|-----------------|----------------|--------------|-------------------|
| 전체 | 377 | 1,324 | 4,038 | 5,229 | 4,212 | 1,587 | 1,499 | 18,266 |
| 남성 | 196 | 557 | 1,309 | 386 | 369 | 566 | 581 | 3,964 |
| 여성 | 181 (1.3) | 767 (5.4) | 2,729 (19.1) | 4,843 (33.9) | 3,843 (26.9) | 1,021 (7.1) | 918 (6.4) | 14,302 (100.0) |

자료: 통일부 2011. 8월

다. 재북 직업별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나 입국 목적의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70년-80년대는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탈북이 많아 고학력과 전문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식량난 등 경제적, 개인적인 이유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따라 인적자원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기에 많았던 전문직, 군인, 공작원, 예술분야 등의 비율은 낮고 무직부양, 노동자의 비율이 88.5%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여성들은 무직부양자가 54.5%로 가장 많고, 노동자 및 농장원이 36.3%로 다음을 차지하여 양 직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5〉 재북 성별/직업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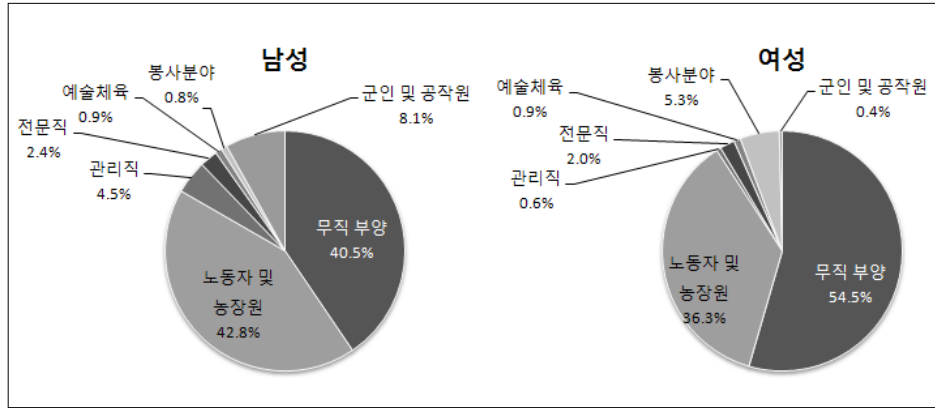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 무직 부양 | 노동자 및 농장원 | 관리직 | 전문직 | 예술체육 | 봉사분야 | 군인 및 공작원 | 계 |
|----|------------------|-----------------|--------------|--------------|--------------|--------------|--------------|-------------------|
| 전체 | 10,609 (50.2) | 8,105 (38.3) | 388 (1.8) | 446 (2.1) | 188 (0.9) | 818 (3.9) | 594 (2.8) | 21,148 (100.0) |
| 남성 | 2,667 (40.5) | 2,817 (42.8) | 294 (4.5) | 161 (2.4) | 56 (0.9) | 51 (0.8) | 533 (8.1) | 6,579 (100.0) |
| 여성 | 7,942 (54.5) | 5,288 (36.3) | 94 (0.6) | 285 (2.0) | 132 (0.9) | 767 (5.3) | 61 (0.4) | 14,569 (100.0) |

주: 관리직(당간부·지도원 등), 전문직(의사·교원·통역원 등), 예술(배우·작가·선동대원 등), 봉사(사무원·요리사·미용사 등), 기타(무직·피부양자·아동·학생 등)

자료: 통일부 2011. 8월

(단위: %)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현황

라. 재북 학력별 현황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의 학력을 보면 고등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74.6%로 가장 많고, 전문대 학력 소지자가 7.5%,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6〉 재북 성별/학력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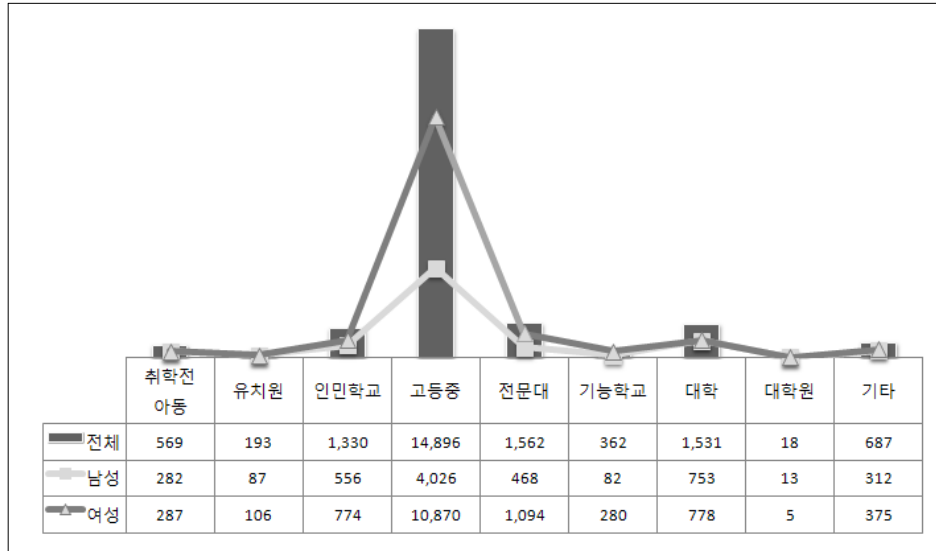
| 구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 | 인민 학교 | 고등중 | 전문대 | 기능 학교 | 대학 | 대학원 | 기타 | 계 |
|----|--------------|--------------|----------------|------------------|----------------|--------------|----------------|-------------|--------------|-------------------|
| 전체 | 569 (2.7) | 193 (0.9) | 1,330 (6.3) | 14,896 (70.4) | 1,562 (7.4) | 362 (1.7) | 1,531 (7.2) | 18 (0.1) | 687 (3.2) | 21,148 (100.0) |
| 남성 | 282 (4.3) | 87 (1.3) | 556 (8.5) | 4,026 (61.2) | 468 (7.1) | 82 (1.2) | 753 (11.4) | 13 (0.2) | 312 (4.7) | 6,579 (100.0) |
| 여성 | 287 (2.0) | 106 (0.7) | 774 (5.3) | 10,870 (74.6) | 1,094 (7.5) | 280 (1.9) | 778 (5.3) | 5 (0.0) | 375 (2.6) | 14,569 (100.0) |

주: '11. 1 기준

자료: 통일부(2011)

16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단위: 명)



[그림 II-3]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성별/학력별 현황

마. 국내 거주지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거주 현황을 보면 서울이 29.0%(5,690명), 경기도 27.0%(5,179명), 인천 9.2%(1,809명)로 서울과 수도권에 65% 가량 살고 있다.

〈표 II-7〉 지역별 거주 현황

(단위: 명, %)

|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경남 | 충남 | 대구 | 경북 | 충북 |
|----|-----------------|-----------------|----------------|--------------|--------------|--------------|--------------|--------------|--------------|
| 인원 | 5,690 (29.0) | 5,179 (27.0) | 1,809 (9.2) | 806 (4.1) | 724 (3.7) | 721 (3.7) | 627 (3.2) | 696 (3.6) | 598 (3.0) |
| 지역 | 광주 | 강원 | 대전 | 전남 | 전북 | 울산 | 제주 | 계 | |
| 인원 | 521 (2.7) | 490 (2.5) | 437 (2.1) | 441 (2.3) | 374 (2.0) | 247 (1.3) | 125 (0.6) | 19,485 | |

주: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자료: 통일부(2011. 7)

2.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가. 경제활동참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관련조사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서윤환 외, 2011)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8.7%인 데 비해 여성의 참가율은 41.1%로 남성에 비해 매우 낮고, 우리사회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남성 73.0%, 여성 49.4%)과 비교할 때 남성은 4.3%p, 여성은 8.3%p 낮다. 또 다른 조사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의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조사(허선행 외, 2010)에 의하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6%,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1%로 우리 사회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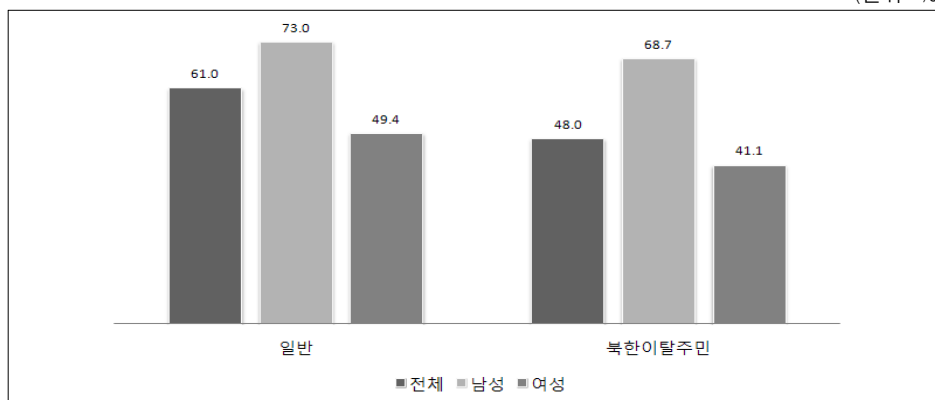
〈표 Ⅱ-8〉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연도 | 2007.11 | 2008.11 | 2009.11 | 2010.12 |
|----|---------|---------|---------|---------|
| 전체 | 47.9 | 49.6 | 54.9 | 48.0 |
| 남성 | 61.0 | 69.2 | 73.5 | 68.7 |
| 여성 | 42.4 | 41.3 | 48.0 | 41.1 |

자료: 서윤환·이용화(2011). 「201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북한인권정보센터

(단위: %)



[그림 Ⅱ-4]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0)

18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참가자 연령 분포는 40대가 35.7%로 가장 많으며, 30대는 35.1%, 20대는 17.0%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36.7%, 30대는 30.0%이고, 여성은 30대 37.8%, 40대 35.1%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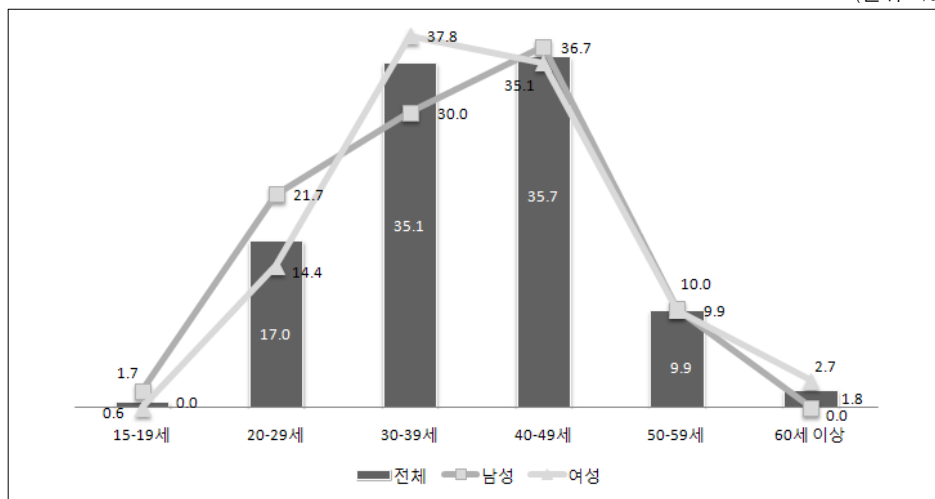
〈표 II -9〉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분 | | 15-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
| 2010 | 전체 | 0.6 | 17.0 | 35.1 | 35.7 | 9.9 | 1.8 |
| | 남성 | 1.7 | 21.7 | 30.0 | 36.7 | 10.0 | 0.0 |
| | 여성 | 0.0 | 14.4 | 37.8 | 35.1 | 9.9 | 2.7 |
| 2009 | 전체 | 0.5 | 14.3 | 31.7 | 38.6 | 13.2 | 1.6 |
| | 남성 | 1.5 | 23.9 | 25.4 | 38.8 | 10.4 | 0.0 |
| | 여성 | 0.0 | 9.0 | 35.2 | 38.5 | 14.8 | 2.5 |
| 2008 | 전체 | 0.6 | 19.1 | 37.0 | 33.3 | 6.2 | 3.7 |
| | 남성 | 1.5 | 24.2 | 30.3 | 33.3 | 9.1 | 1.5 |
| | 여성 | 0.0 | 15.6 | 41.7 | 33.3 | 4.2 | 5.2 |

자료: 서윤환·이용화(2011). 「2010년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북한인권정보센터

(단위: %)



[그림 II -5]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0년)

북한이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심신장애, 즉 건강이 안 좋아서’ 36.4%, ‘육아’ 22.8%, ‘통학’ 22.3% 순으로 나타났다(서울환외,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육체적 어려움’이 44.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육체적 어려움’ 35.9%, ‘육아’ 28.7%로 나타나 남녀 모두 건강문제가 가장 많고 여성들은 육아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2009)에 의하면, 여성들의 미취업사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29.4%, ‘학업을 계속하느라’ 25.0%, ‘자녀 양육 때문에’ 21.0%,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12.9%, ‘집안 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9.7%,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없어서’ 8.1%, ‘전공과 경력,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에서는 ‘학업을 계속하느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에서는 ‘자녀양육 때문에’, 40대에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50대에서는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연령별로 취업에 따른 어려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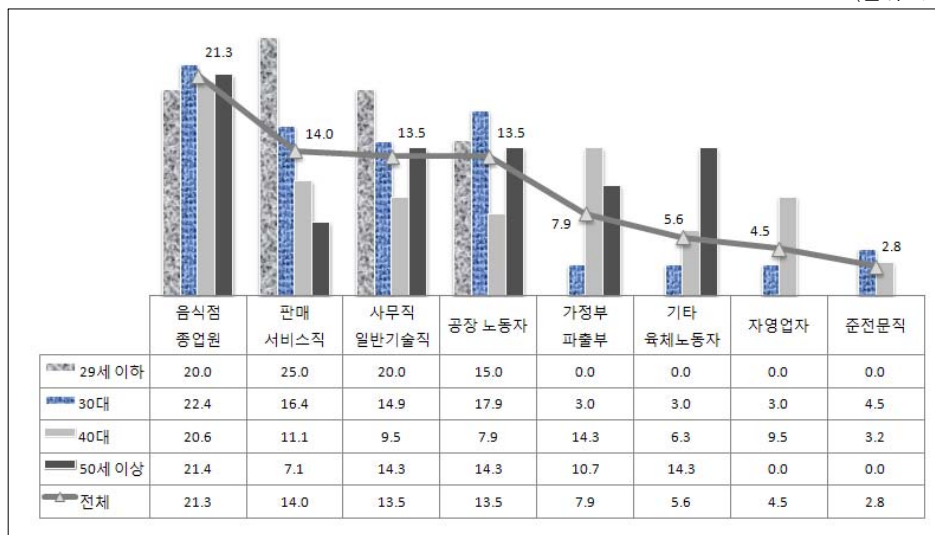
나. 업종별, 직종별 취업 현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조사(2010)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제조업 종사율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11.9%, 도매 및 소매업 10.7%, 운수업 9% 순이고, 여성은 제조업 24.4%, 숙박 및 음식점업 23.3%, 기타 공공 및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8% 등으로 남녀 모두 제조업 종사율이 가장 높고 여성은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 분포는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27.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5.4%, 판매종사자 10.7%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 26.5%, 단순노무종사자 16.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0% 등으로, 남성은 단순노무직, 여성은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서울시 실태조사(2009)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의 직업은 음식점 종업원이 2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14.0%, 사무직·일반기술직 13.5%, 공장노동자 13.5%, 가정부·파출부 7.9%, 기타 육체 노동자 5.6%, 자영업 4.5% , 준전문직 2.8%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판매·서비스직’ 종사율이 높았으며, 40대 이상 연령층은 ‘가정부·파출부’와 ‘기타 육체노동자’ 응답률이 30대 이하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는 공장노동자, 판매서비스직, 파출부 종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학교 중퇴 이상은 ‘사무직·일반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음식점종업원으로 일하는 비율도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주: 통계는 장명선 외(2009) 참고.

[그림 Ⅱ-6]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종사 직업

다. 취업 형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사업장 규모는 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51.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1.4%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150만 원 이하’가 75.6%에 이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균근로소득은 남성은 176만 원, 여성은 119만 원으로 여성의 근로소득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선행 외, 2010). 고용 형태를 보면, 서울시 거주여성들의 경우(장명선 외, 2009)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비율이 높다.

라. 취업 경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경로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21.8%, ‘가까이 지내는 남한사람을 통해’ 17.0%, ‘가까이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12.7%, ‘인터넷을 통해’ 11.6%,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5.8%, ‘학교나 교사를 통해’ 4.1%,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허선행 외, 2010).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 경로도 ‘신문이나 잡지 등 전단지’ 25.3%, ‘북한 친구 이웃 소개’ 23.6%, ‘한국 친구 이웃 소개’ 12.9%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 알선기관’ 15.7%, ‘민간 종교단체’ 6.2%, ‘공공기관 소개’ 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취업 관련 공공기관 이용률이 저조하다(장명선 외, 2009). 최대석 외(2010)의 조사에서는 여성의 39%는 친구·친지 소개, 20.8%는 온라인, 무가지신문 16.9%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한 공개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 관련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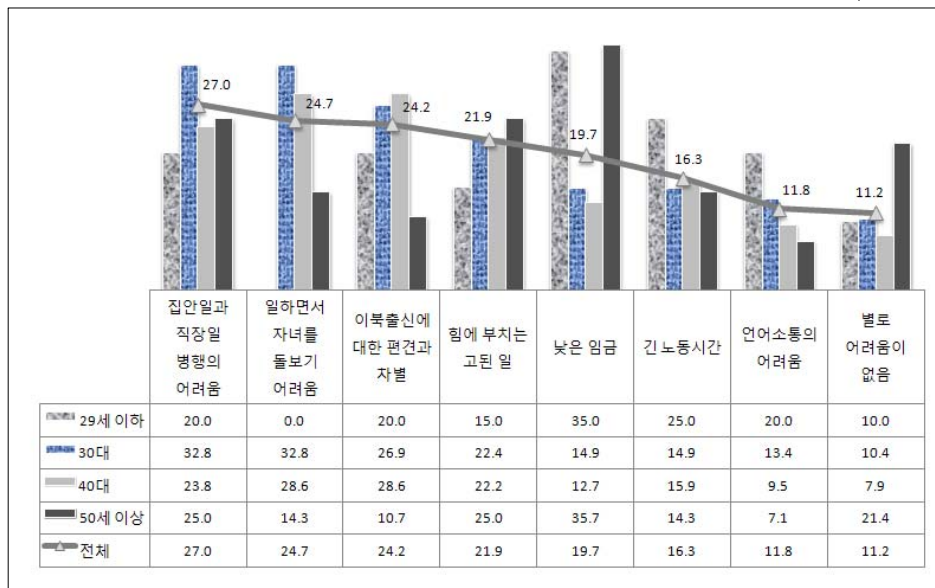
마. 직장생활의 애로

북한이탈여성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점에 대해서는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일을 병행하기 어려움’이 2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움’ 24.7%, ‘이북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24.2%, ‘힘에 부치는 고된 일’ 21.9%, ‘낮은 임금’ 19.7%, ‘긴 노동시간’ 16.3%, ‘언어 소통의 어려움’ 11.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업무 애로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는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고, 다음이 직장일과 집안일 병행의 어려움이 크다. 30~40대 연령층은 직장일

22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과 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편견과 차별, 고된 일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장명선 외, 2009).

(단위: %)



* 주: 통계는 장명선 외(2009) 참고.

[그림 II-7]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별 직장생활의 어려움(복수응답)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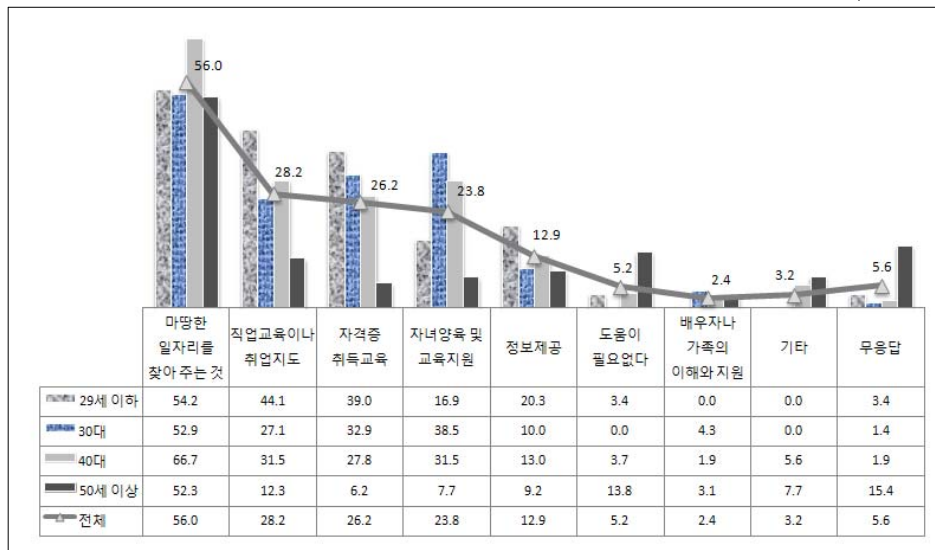
가. 취업 기준 및 취업지원 요구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직업선택 기준으로 ‘수입’을 가장 중시하고 (38.7%), 그 다음으로 ‘직업 안정성’(29.6%), 발전성·장래성’(20.0%)을 중시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일수록 ‘수입 정도’ 응답률이 높았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직업 안정성’, ‘발전성·장래성’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56.0%가 ‘마땅

한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교육이나 취업지도' 28.2%, '자격증 취득 교육' 26.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23.8%, '정보제공' 12.9%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직업교육이나 취업지도', '자격증 취득교육' 응답률이 높았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은 30~40대 연령층의 응답률(30대 38.6%, 40대 31.5%)이 높다(장명선 외, 2009). 최대석 외(2010)에서도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50.0%), 양육 지원(35.3%), 일자리 알선(32.4%), 직업훈련(26.5%)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들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직업훈련, 양육지원 요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위: %)



* 주: 통계는 장명선 외(2009) 참고.

[그림 Ⅱ-8]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별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요구(복수응답)

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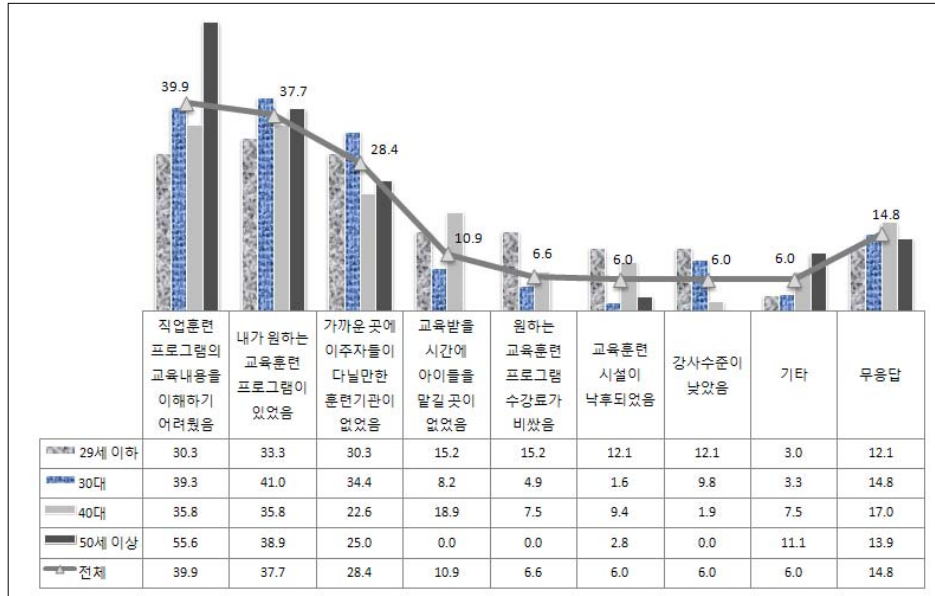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50.3%로 2009년의 39.9%보다 10.4%p 증가한 수치이며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도 65.3%에 달한다(서윤환 외,

201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직업훈련 경험률이 43.0%이고, 29세 이하 41.8%, 30대 44.5%, 40대 45.3%, 50세 이상 38.7% 등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높아지다가 50세 이상 연령층의 직업훈련 참여 경험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직업훈련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장명선 외, 2009). 최대석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훈련 참여율이 56.9%이고, 훈련직종을 보면 여성은 사무관리 분야(35.5%)와 서비스 분야(30.7%) 순으로, 남성은 기계장비 분야(44.7%) 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최대석 외, 2010).

다.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및 훈련 시 애로점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는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4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이므로’ 29.6%,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26.7%, ‘원하는 직종에 해당되는 교육훈련이 없어서’ 21.7%, ‘직업훈련을 받을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17.9%,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을 당시 애로점으로는 잦은 외래어 사용 및 전문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음’과 ‘내가 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었음’의 응답률이 각각 39.9%와 37.7%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곳에 이주자들이 다닐 만한 훈련기관이 없었음’ 28.4%, ‘교육받을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음’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장명선 외, 2009). 최대석 외(2010)의 조사에서도 직업훈련 중 중도탈락하는 이유로 ‘훈련내용이 어려워서’가 40.0%로 나타나 훈련용어나 내용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사유로 ‘훈련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에 여성의 응답률이 23.7%로 남성의 6.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단위: %)



* 주: 통계는 장명선 외(2009) 참고.

[그림 Ⅱ-9] 북한이탈여성의 연령별 직업훈련 애로점(복수응답)

라. 직업훈련 요구

서울시 조사(장명선 외, 2009)에 의하면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의 63.8%가 ‘있다’고 하여 요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세 이하 79.7%, 30대 65.7%, 40대 70.1%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의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67.3%로 전문학교 중퇴 이상 층 5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경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8.4%였으며, 미취업자는 67.7%로 미취업자는 물론 취업자의 훈련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향후 희망하는 직업훈련 내용으로는 취·창업에 전제가 되는 ‘컴퓨터 관련 교육’이 65.4%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직업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 교육에도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대석 외(2010)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시 더 강화해야 할 내용으로 직업기술교육 다음으로 언어소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은 언어소통교육 강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28.1%로 남성의 18.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 -10〉 북한이탈주민이 보는 직업훈련 강화 내용

(단위: 명, %)

| 구분 | 사례 수 | 언어소통 | 직업정신 | 직업기술 | 협동심 | 영어 | 직장문화 | 정신교육 | 무응답 |
|----|------|------|------|------|-----|-----|------|------|-----|
| 전체 | 214 | 25.7 | 15.0 | 33.6 | 2.3 | 4.2 | 3.3 | 15.4 | 0.5 |
| 남성 | 54 | 18.5 | 13.0 | 46.3 | 3.7 | 1.9 | 5.6 | 11.1 | 0.0 |
| 여성 | 160 | 28.1 | 15.6 | 29.4 | 1.9 | 5.0 | 2.5 | 16.9 | 0.6 |

자료: 최대석 외(20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전체 북한이탈입국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06년 이후 70%를 넘어 2010년 75.7%에 달하고, 여성들의 탈북사유는 보다 나은 삶의 기회(63.7%)를 찾고 경제적 어려움(59.4%)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많다. 재북 직업으로는 무직부양(54.5%)과 노동자·농장원(36.3%) 출신이 전체의 약91%를 차지하고, 학력은 고등중학교 학력이 74.6%로 가장 많아, 대체로 학력이 낮고, 직업경력이 없거나 단순노무직 경력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학력과 경력 부족 외에 북한이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 건강문제, 육아문제가 크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현재 제조업(24.4%)과 음식숙박업(23.3%), 서비스업(11.8%)에 단순노무직/공장노동자(32.4%)와 판매·서비스직(26.5%)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대체로 노동시장의 하위층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보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훈련경험율은 높지만, 훈련을 받을 시간 부족, 교육용어 및 내용 이해의 어려움, 전용훈련기관 부족, 보육문제 등으로 훈련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높으며, 직업기술교육 가운데 컴퓨터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언어소통교육, 인간관계교육, 직업의식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난다.

III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취업지원 관련 정책

- | | |
|-------------------|----|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 29 |
|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 42 |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훈련과 취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착지원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과 취업정책은 전체 정착지원의 틀 안에서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법은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그 이전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1962.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1979.1)’에서는 귀순자를 국가유공자나 귀순용사로 우대하였으나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6)’ 이후 귀순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정착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정책 및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정착지원제도 가운데 정착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가 훈련·취업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⁵⁾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 과정은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 합동 신문 → 보호결정 → 하나원에서의 정착 준비 → 거주지 보호 → 자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5) 정착지원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해당 부처의 2009, 2010, 2011년 업무추진계획 참고.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그림 Ⅲ-1]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흐름도)

지원 단계별로 여러 부처와 관련기관의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통일부 관련 기관으로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 하나센터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협의 및 조정,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9개 부처(통일부, 기

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가 참여하고 있다.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변보호담당 공무원,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북한이탈주민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기업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⁶⁾.

정부에 의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⁷⁾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취업지원, 훈련, 장학, 전문상담인력 양성과 상담, 민간단체 협력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 통일부는 정착지원시설로 하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역적응센터로 하나센터⁸⁾를 전문기관에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나센터의 초기집중교육(3주)과 적응 지원(1년)사업⁹⁾은 지역이해교육, 적응력 향상교육, 취업지원·진로지도 등 자립·자활기반 조성프로그램, 의료연계 및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가족문제나 법률문제 등 개인적 애로사항 해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표 Ⅲ-1〉 정착지원 단계별 정책목표 및 관련 기관

| 보호 단계 | 시설보호 | 거주지 편입 | 거주지 보호 | 사후지원 |
|----------|--------------------------------|---------------|----------|---------------------|
| 지원 목표 | 우리사회 기본적 이해 및 사회적응 능력 제고 | 초기 생활안정 지원 | 자립·자활 지원 |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

6)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참고.

7) 전신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8) 2009년에 도입되어 6개 지역(서울북부, 경기서부, 대구, 경기북부, 대전, 광주)에서 운영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여 개 하나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지정기간은 3년임.

9)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참고.

10) 기초직업훈련도 제공하고 있음

| 보호 단계 | 시설보호 | 거주지 편입 | 거주지 보호 | 사후지원 |
|----------|--------------------------------------------------------------------------------------------------------------------------------------------------|---------------------------------------------------------------------------------------------------------------------------------------------------------------------------------------------------|------------------------------------------------------------------------------------------------------------------------------------------------------------------------------------------------------------------------------------------|--------------------------------------------------------------------------------------------------------------------------------------------------|
| 주요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조사를 통한 보호결정 - 사회적응 교육¹⁰⁾ (3개월) - 심리상담 진로지도 - 생활관리·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금 등 재정적 지원 - 기초생계급여 - 주택배정 - 직업훈련 - 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 - 자격·경력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보호 - 교육 지원 - 의료보호 - 생활보호 - 생업 지원 - 거주지·신변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사항 파악 -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 - 장학사업 - 상담사업 |
| 관련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 통일부(하나원)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민간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 고용노동부 - 경찰청 - 하나센터 - 지방자치단체 보호담당관 - 정착도우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 고용노동부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보호담당관 - 하나센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정착도우미 -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 하나센터 - 지방자치단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등 |

자료: 이금순 외(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제도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특화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여성특화 정책을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착금 지원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제도를 폭 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착금은 정착기본금 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

금¹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정착기본금은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 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 원으로 2004년 이전의 53% 수준이다. 정착장려금은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취업해 있을 경우에 최대 2,440만 원 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착가산금이 지급되는데, 동일인에게 하나의 사유만 인정하여 지급된다.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에게 연령가산금,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고,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장기치료 가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만 13세 미만의 편부모아동 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가산금도 지급된다.

〈표 Ⅲ-2〉 정착금 지급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 정착금 지원 | 기본금 | -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 세대구성에 따라 책정 |
| | 장려금 |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440만 원의 장려금 지원 ¹²⁾ - 지방거주 장려금 |
| | 가산금 |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장기질병,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

나. 주거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 거주지에 진입할 때 임대주택을 알선한다.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의 경우에는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만, 그 이상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은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가산금 신청 및 지급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으로 한정

12) 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에서 상세히 언급함.

〈표 Ⅲ-3〉 주거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 주택 지원 | 주거 알선 | - 임대아파트 알선 |
| | 주거지원금 | -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

다.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거주지 보호기간 중인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할 때는 학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할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Ⅲ-4〉 교육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교육 지원 | - 학력인정: 학력인정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인정 -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재교육 |
| | - 학비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초·중등은 만 25세 미만, 고등교육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졸 이상 학력 인정 후 5년 내 만 35세 미만에 (편)입학한 사람 - 진학 희망자의 경우 대학특례입학(재외국민특별전형 혜택) |

그밖에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는 2011년 중점과제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탈북 청소년 균등 교육기회 부여’를 추진 중에 있

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진단, 진로·진학 상담, 편입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 6세-19세 이하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한 취업 제고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2011년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의 일환으로 ‘바른 인성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추진, 이를 위한 ‘우선배려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그 대상에 탈북학생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맞춤형 교육복지 차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Ⅲ-5〉 교육 관련 정책

| 부처 | | 정책 현황 |
|------|---------|----------------------------------------------------------------------------------------------------------------------------------------------------------------------------------------------------------------------------------------------------------------------------------------------------------------------------------------------------------------------------------------------------------------------------------------|
| 2011 | 통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내 만 6세~19세 이하 희망자 대상 예비학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진단, 진로·진학 상담/보충학습/편입학 지원 등 ○ 대안학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학교, 민간대안교육시설 등 지원 및 장학금 확대 ○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 취업 제고 프로그램 실시 |
| | 교육과학기술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상담, 부진과목 집중 교과보충교육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학생 밀집 학교(‘11년, 10교)에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확대 로 생활지도, 상담,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전원 장학금 도입(3,159억 원), 장애·다문화·탈북·위기학생 지원, 든든학자금 안착,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도입(1,000억 원) 등 |

라.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이 될 때까지 조건 없이 지원하는데,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성원 수보다 1명을 추가한 금액을 지급한다.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표 Ⅲ-6〉 사회보장 지원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사회보장 지원 | - 생계급여 지원: 6개월 동안 무조건 지원, 6개월 이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부 지원(1인 세대 월 약 42만 원) |
| | - 연금 특례 |
| | - 의료보호 지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

상담·의료 관련 정책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2011년 중점과제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상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종합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심리, 취업, 의료, 법률 등의 상담을 위해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24시간 운영 중이다. 또한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적인 도우미를 현장에 배치하여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추진, 그 차원에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대상자에 북한이탈 주민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축축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의료급여 증액’, ‘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책수혜자로 되어 있다.

〈표 Ⅲ-7〉 상담·의료 관련 정책

| 부처 | | 정책 현황 |
|------|-------|-------------------------------------------------------------------------------------------------------------------------------------------------------------------------------------------------------------------------------------------------------------------------------------------------------------------------------------------------------------------------------------------------------------------------------------------------------------------------------------------------------------------------------|
| 2011 | 통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내 24시간 종합상담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취업, 의료, 법률 등 전문상담사 배치 ○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변호사 등 전문도우미 확대, 현장에서 직접 민원 해결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집단거주지역(임대아파트 등) 보건소에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전담 상담사 배치 ('11. 3월, 전국 10개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12백명, 13억 원) 지원, 보장성 확대(381억 원) 등 의료급여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신규): 12백 명 ○ 이탈주민 건강검진(3,600명) 및 예방접종(270명) |

마. 거주지 보호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각 지역협의회,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우선 하나센터를 통해 2009년 3월부터 하나원 퇴소 이후 3주간의 지역적응교육을 시행하고 1년간의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정착도우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후 1년간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보호담당관은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구분하여 행정 지원, 취업지원, 신변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한다.

〈표 Ⅲ-8〉 거주지 보호제도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거주지 보호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 - 보호담당관: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 신변보호 담당관 - 정착도우미: 거주지에서 생활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 지정.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 지정하여 초기 정착지원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바. 여성특화 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물론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특화 정책도 있다. 통일부는 여성직업훈련과 복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여성훈련과 취업지원, 여성가족부는 인권보호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 대상 정책에 관해 2011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중점과제 추진계획의 하나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부인과 질병 등 여성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 사전 예방 실시, 출산 지원금 지급 및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여성특화 교육(돌봄 교육) 및 사무직 신용보증 등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원의 북한이탈여성 직업훈련을 한국폴리텍여자대학에 위탁운영하다가,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북한이탈여성 전용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남한사회의 인권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남녀관계 등의 형성 지원을 위한 ‘탈북여성의 사회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여성 인권보호’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탈북여성 인권보호도우미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유흥업소 종사 탈북여성의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극히 일부 여성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6695호, 2000년 1월 28일)

제47조의 2(생업 지원) 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모자(母子)가정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0117호, 2007년 6월 28일)

제2조(협회의 구성)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 제53호, 2009년 8월 5일)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2009년 12월 7일)

제10조(직업훈련장려금)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 출산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2009년 12월 7일)

제12조(취업장려금) ⑦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한다)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표 Ⅲ-9〉 부처별 북한이탈여성 특화정책

| 부처 | 연도 | 지원 내용 |
|-------|-----|---------------------------------------------------------------------------------------------------------------------------------------------------------------------------------------------|
| 통일부 | '11 | ○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 강화: 건강검진, 육아, 직업교육 등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부인과질환 등 여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전 예방 실시 - 출산 지원금 지급 및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여성특화 교육(돌봄교육) 및 사무직 신용보증 등 능력 개발 ○ 하나원 내 탈북여성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 |
| | '10 | ○ 법률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법률·의료단체) - 여성·청소년·노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분야별 지원 지속 강화 |
| | '09 | ○ 성별·연령별·능력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건강회복, 진로상담·직업훈련 지원 강화 - 산부인과 의료인력 충원(복지부) 등 부인과 질환 치료 강화 |
| 여성가족부 | '11 | ○ 사회 적응단계별 교육을 통한 탈북여성 사회정착지원 -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하나원 안성 본원) 총 12회 ○ 양성평등 인권보호교육 지역적응센터까지 확대 실시 및 '탈북여성 인권보호도우미' 지정·운영 ○ 유흥업소 종사 탈북여성의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상담 실시 |
| | '10 | ○ 「양성평등 여성인권보호 교육」 정규 실시 -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하나원 안성 본원) 총 12회 1,510명 - 폭력피해 위기관리 역량강화, 가정·사회생활 갈등해결 등 사회적응력 제고 |
| | '09 | ○ 탈북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정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참여 확대) ○ 「하나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보호 교육프로그램 실시 |
| 고용노동부 | '11 | ○ 북한이탈여성 훈련계좌 발급 - 여성훈련기관의 '북한이탈여성 훈련과정'의 계좌제 승인 - 자부담 면제 |
| | '10 | ○ 탈북여성의 사회성 향상과 적응을 위한 여성특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하나원 직업교육을 한국폴리텍여자대학에 위탁 운영 |
| | '09 | ○ 탈북여성의 사회성 향상과 적응을 위한 여성특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하나원 직업교육을 한국폴리텍여자대학에 위탁 운영 |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정책방향이 자립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이탈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훈련과 취업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과 하나센터를 통해 기초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탁훈련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보화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인권보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하나원 내에서의 직업훈련은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도 통일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5년 정착지원 사업법 개정으로 정착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직업훈련 교육,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 등 자립 능력과 관련되는 성과지표와 장려금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2010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훈련과 취업에 관한 통일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1) 관련 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지침」에 의거 통일부는 직업지도, 직업훈련, 훈련수당 및 고용지원금 지급, 취업보호, 취업장려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착 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근로자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훈련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직업지도¹³⁾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전입 후 최초 취업일¹⁴⁾로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보호대상자¹⁵⁾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2분의 1 범위 내(1년까지는 50만 원 이내, 1년 초과 시에는 70만 원 이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착금의 일환으로 취업 관련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으로 구분한다. 장려금은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¹⁶⁾, 자격을 취득한 경우¹⁷⁾,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¹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고, 훈련장려

-
- 13) 직업상담·적성검사 실시, 직업정보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적정 훈련기관 알선 등
- 14)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15) 취업보호대상자는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 전입 후 거주지 보호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16) 직업훈련장려금은 「근로자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포함)에서 수료한 훈련시간과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과정 수료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훈련과정을 여러 개 이수한 경우 동일 훈련분야의 3개 과정까지 이수시간 합산할 수 있음. 단, 120시간 이상의 실업자과정은 종전의 규정 적용. 고용노동부 선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우선선정직종) 또는 1년 이상 훈련의 경우 훈련장려금 추가 지급함.
- 17) 500시간 수료 후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기타 통일부장관이 장려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한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은 최초 발급일이 2010.9.13 이후 자격증부터 인정
- 18)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

금과 자격취득장려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¹⁹⁾.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 북한이탈여성이 출산휴가(최장 90일까지 인정)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2) 사업 현황²⁰⁾

통일부의 최근 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하나원 내 기초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 진로지도와 직업기초능력훈련 실시
 - 진로지도·직업기초능력훈련(193시간): 적성 검사, 직종설명회, 직업훈련 기관 방문, 직종별 직업훈련 등 기초 직업훈련 강화
- '08년부터 하나원 내에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 추진, 확대
 -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모집-훈련-채용' 연계
 - 직업전문학교와 기업체가 새터민을 훈련수료 후 채용하기로 사전협약
 - '08년 현대호텔관광 직업전문학교(제과·제빵, 한식, 중식, 양식조리사), 예림 직업전문학교(보석가공) 등에서 직업훈련 수료 후 (주)CJ푸드빌, (주)아라코, (주)제모피아 등에 채용
 - '10년 5월까지 제과·제빵, 귀금속 디자인, 조리사, 양장사 과정에 189명이 참가하여 그중 124명이 협력업체에 취업
 - 산모도우미 전문(자격)훈련 실시: '09년 9월, 하나원과 대한적십자사(경기지사)는 북한이탈주민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

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중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취업유지 시 지급. 단, 보호기간 내 취업했으나 취업 중 보호기간 종료된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

19) 장려금 신청은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20) 통일부 현황은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김연희 외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2009년, 2010년의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및 통일부 홈페이지의 '알림마당-북한이탈주민정책-관련자료' 등을 참고.

모도우미 전문(자격) 훈련을 실시함.

- '10년 5월부터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표준과정 개편, “단기집중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훈련 강화로 교육생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1개의 직종을 선택해 76시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도록 함. 기존 직종탐색 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1인 1직종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환
 - '09년 여성 직업훈련과정: 전자부품조립, 귀금속 장신구 제작, 흙패션, 컴퓨터 응용, 기계제도, 염색, 네일아트, 피부미용, 사진편집, 간병인, 플로리스트, 정보검색 등
 - '10년 여성 단기집중 직업훈련과정 직종 축소: 피부미용, 봉제, 기초조립, 품질관리 등 4종, 남성 2종(중장비운전·자동차정비).
 - '11년 요양보호사, 봉제, 기초조립, 품질관리 4개 과정에서 하나 선택. 하나원과 한경대학교(요양보호사훈련), 청강문화산업대학(봉제훈련), 두원공대(기초조립, 품질관리) 업무협약 체결.
- 정규과정 외에 실생활 과목 및 자격증 취득반으로 구성되는 자율선택형 보충 프로그램 확대(386시간→438시간). 일과 전후 프로그램 및 주말 직업학교 등 총 438시간을 편성, 교육생 개인별 선호에 따른 선택학습 기회를 제공
 - 일과 전후 과정: 우리말 우리글, 영어, 컴퓨터, 운전, 역사 등
 - 주말 과정: 간병인반, 취업설명회, 체육, 문화활동 등

② 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사람 중 500시간 이상의 노동부 승인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500시간 이상 수료 후 자격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200만원을 지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²¹⁾에 취업한 후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게 250만원부터 650만원까지 장기취업장려금을 지급. 여성대상 출산휴직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하여 취업장려금 지급조건을 완화.

21) 단, 풍속영업, 사행행위영업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

〈표 Ⅲ-10〉 정착장려금 제도

| 구분 | | 기준 | | 금액(만원) |
|------------------|------------------------|----------------------------|-------------------------------|---------------------|
| 취 업 지 원 | 직업훈련 장려금 | 500시간 | | 120 |
| | | 500시간~1,220시간 | | 120시간당 20만 원씩 증액 |
| | *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 1년 이상 과정, 우선선정직종 훈련과정 수료 시 | | 추가 200 |
| | 자격취득 장려금 | 1회 限 | | 200 |
| | 장기취업 장려금 | 1년차 |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 시 250 지급 | 550 |
| | | 2년차 | | 600 |
| | | 3년차 | | 650 |
| | 총액(직업훈련추가장려금 제외) 2,240 | | | |
| 지 방 거 주 | 지방거주 장려금 (2년 후 지급)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 미지급 |
| | | 광역시(인천시 제외, 주거지원금의 10%) | | 130 |
| | | 기타 지역(주거지원금의 20%) | | 260 |

주: 자립·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 장려금 증액(2007년 4월). 취업 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2005년 5월 사회진출자)부터 대상

자료: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 취업 관련 정착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현황은 <표 Ⅲ-11>과 같음.

〈표 Ⅲ-11〉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 종류 | 직업훈련 | 자격취득 | 우선선정직종 | 취업장려금 | 전체 |
|------|-----|-------|-------|--------|-------|--------|
| 2007 | 지급액 | 360 | 434 | 98 | 122 | 1,014 |
| | 인원 | 289 | 217 | 49 | 28 | 583 |
| 2008 | 지급액 | 630 | 690 | 188 | 891 | 2,399 |
| | 인원 | 506 | 345 | 94 | 196 | 1,141 |
| 2009 | 지급액 | 884 | 1,040 | 218 | 2,969 | 5,111 |
| | 인원 | 681 | 520 | 109 | 646 | 1,956 |
| 2010 | 지급액 | 1,500 | 1,712 | 650 | 6,685 | 10,547 |
| | 인원 | 985 | 856 | 325 | 1,325 | 3,491 |

자료: 통일부(2011).

◦ '11년 개정 내용

- 직업훈련의 단기화 추세에 따라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시 기존 1개 → 동일분야 3개 과정까지 이수시간 합산이 가능하도록 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시험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으로 인정
- 초기 취업 시 브로커비용 등 현금수요를 감안하여 희망자에 한해 1년차 취업장려금 550만원을 6개월차(250만원) 2회로 지급(500만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인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의 경우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③ 고용지원금

-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임.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월 50만원의 범위, 2년차에는 월 70만원의 범위,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년차에도 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 고용지원금의 수혜 인원은 '05년에 도입된 취업장려금 제도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Ⅲ-12〉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업체 수 | 564 | 888 | 1,151 | 1,419 |
| 인원 | 728 | 1,111 | 1,489 | 1,963 |
| 지급액 | 2,240 | 3,495 | 6,406 | 9,732 |

자료: 통일부(2011).

④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²²⁾의 직업준비교육

- 지역적응교육은 초기집중교육(3주, 60시간)과 1년간의 ‘사후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 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초기집중교육 수료자에게는 60시간을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시간으로 인정함.

〈표 Ⅲ-13〉 초기집중교육 예시

| 영역 | 주제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초기정착 지원 교육 | 일상 생활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및 제도 안내(물건구입, 은행거래, 법률, 경제,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등) | 5일 (20시간) |
| | 지역사회 이해 | 지역 현황, 정착지원기관, 지역 내 주요기관 소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용방법 안내) | |
| | | 지역 내 주요기관 탐방 (시·도청, 구청, 고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 |
| | 보호담당관 특강 | 각 보호담당관의 역할 소개와 초기미팅 (신변, 거주지, 취업보호 담당관/ 필요 시 교육청 관계자) | |
|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육 |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 - 생활점검 및 생활설계 - 취업(근로활동)의 동기와 목적 정리 | 5일 (20시간) |
| | 직장생활 이해 | - 직업의 종류와 필요성 직장문화 등 강의 : 대인관계, 갈등해결방법, 의사소통방법훈련 등 포함 | |
| | 직업훈련 프로그램 | - 직업훈련프로그램 탐색 및 방문 -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훈련, | |
| 개인역량 강화 교육 | 자기이해 | -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 : 강점 및 약점 확인 및 강화를 위한 훈련 - 정신건강 예방교육 :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식, 정신건강 관리 방법 | 3일 (12시간) |
| | 의사소통 향상 | - 표준말 교육(발음 교정, 외래어 교육, 의사소통 방법 등) - 필요 시 1:1 별도 심화교육 지원 | |
| | 사회 및 문화체험 |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방문 - 지역 내 문화시설관람 등 | |

22)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며, 명칭공모전을 통해 별칭으로 ‘하나센터’가 선정됨.

| 영역 | 주제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인생 설계 | 성공사례 소개 | - 모범적인 선배 북한이탈주민 또는 내국인과의 대화 - 인생 성공사례 영상물 상영 등 | 2일 (8시간) |
| | 초기상담 | - 하나원 인계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문제, 능력에 대한 파악 | |
| | 전문가 상담 | -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인생 방향 제시 | |
| 합계 | | | 15일 (60시간) |

자료: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표 Ⅲ-14〉 사후지원사업 예시

| 구분 | 프로그램 예시 |
|--------------|------------------------------------------------------------------------------------|
| ① 교육 및 진학 지원 | ○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관리, ○ 방과후 공부방 운영, ○ 개인 학습지도 ○ 편입학 지원, ○ 입시설명회 참석, ○ 검정고시 등 입시학원 연결 |
| ② 진로 및 취업지원 | ○ 취업상담 및 연결, ○ 기업체 방문, ○ 진로·직업훈련교육 상담 ○ 각종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
| ③ 생계 지원 | ○ 생계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 지역 내 후원인이나 단체결연 |
| ④ 의료 지원 | ○ 의료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 병원연계 및 무료 진료·건강검진 ○ 지원재단의 긴급 의료지원사업 안내 |
| ⑤ 심리·안정 지원 | ○ 심리(정신건강,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 심리상담 및 임상사례관리, ○ 정신질환 치료 지원 |
| ⑥ 법률 지원 | ○ 생활법률 강좌 개설, ○ 기초사회생활법률분쟁(사인간의계약) 해결 ○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기관 연결, ○ 무료 변호사 연결 |
| ⑦ 기타 사후지원사업 | ○ 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 상기 6개 사업을 제외한 사후지원사업 |

자료: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⑤ 사회적 기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채용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의미
- 자부담금 비율, 북한이탈주민 채용,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건물 임차비용, 설비 리스비용 등 1기업당 최대 1억 8천만원 지원
- 고용창출 효과 및 수익성,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시설 투자,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여 2억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시설비, 운영비 등 부족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 후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통한 융자 알선.
- 미소금융재단이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금을 '09년 40억원에서 '10년 60억원으로 증액, 지원 범위도 기존 인증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
- 경영컨설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현황
 - '10년 인증(5개)·예비(16개)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210여명 취업 알선
 - '08년 5월 최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메자니아이팩 설립
 - * 메자니아이팩은 '08년 5월 경기도 파주시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으로 SK그룹과 통일부, 열매나눔재단이 협력해 6억 4,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함. '11년, 전체 직원 34명 중 새터민이 13명이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09년 21억 3,000만원의 매출에 이어 '10년 매출은 전년대비 38%p 증가한 30억원임.
 - '09년 11월, 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
 - '10년 11월, 통일부-POSCO 간 업무협약 체결로 POSCO 사회적기업(주)송도SE)을 설립, 북한이탈주민 35명 채용
 - '11년 3월,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운영(열매나눔재단):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취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채용 후 근속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 등.
- '11년 북한이탈주민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설립(15개 내외)에 대한 지원 계획
 - 대기업·지자체와 연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연계방안으로 △대기업의 자회사형 사회적기업 설립 △대기업·지자체의 우선구매, 전문컨설팅 등 지원방안 마련

⑥ 경제단체, 기업과 고용지원 협약 체결

- '07년 10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와 '새터민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 OJT(on-the-job training) 채용 방식: 새터민을 단기근로자로 고용하여 OJT 실시 후 정규직원화
 - 대우자동차판매(주) 전국 정비사업소에서 '08년 상반기 9명 채용, '08년 하반기 23명 채용
- '08년 12월, KTNET과 연계, 전자문서 프로파일링을 위한 정규직으로 10명 채용
- '09년 기업은행은 조선일보와 Job월드(On-line)를 통해 취업지원사업 시행
 - 1단계: On-line(Job월드) 및 면접 알선을 통한 취업지원 실시(Job월드 내에 「북한이탈주민 채용희망 기업관」마련)
 - 2단계: 기업은행 주요 지점별로(전국 20여개 지점) 상담창구 설치,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실시
- '09년 9월,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취업설명회, 경영자와의 간담회,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여성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09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서울 남부, 경기·인천, 서울 북부,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전국 5곳에서 개최,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258명이 참가하여 그 가운데 51명 채용
-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 행사 진행
 - '10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430개의 중소기업과 85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509명 채용
 - '11년 매월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하나원 교육생 대상으로 만남의 장을 개최, 중소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촉진

⑦ 공공기관 채용 확대

- '10년 9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특별임용, 공공기관 채용 강화, 정부 간 고용정보 공유 등 시행
 - 개정된 정착지원법령에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평가근거 마련 및 북한이탈주민 특별채용 자격조건 완화
 - '10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11명 채용
 - '11년 7월 탈북주민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화자에 대한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 탈북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근거 마련

⑧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06년 개설) 활성화

- 사이버상의 상시적인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구직자 정보 공개, 구직자 DB 연계방안 마련, 북한이탈주민 취업담당의 정보공유 게시판 등 구성

⑨ 창업 지원

- '10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지원을 위한 통일부-현대차미소금융재단 업무협약 체결
 -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선발된 대상자에 대해 창업자금대출, 교육,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실시
 - 창업대출상품(H-하나론)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수료여부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하나론A(최대 5천만 원)와 하나론B(최대 3천만 원) 등이 있음
- '10년 창업 지원(1기) 결과, 신규창업자(12명, 5.2억), 기존창업자(15명, 4.46억) 총 27명에게 9.66억 대출 지원

⑩ 민간단체의 10여개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100여명)

- 굿피플인터내셔널(취업능력 향상 교육), 물운대사회복지관(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알선), 방화6사회복지관(취업교육 및 인턴쉽 프로그램),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영농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⑪ 북한이탈주민 취업촉진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조치 시행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11년 1월부터 시행.
- 의료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아주 열악하여, 취업 시 1종 의료급여 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나. 고용노동부²³⁾

통일부가 북한이탈여성 직업훈련과 취업관련 예산을 직접 관할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고용센터 취업보호 담당관제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북한이탈주민의 훈련을 지원하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 계좌제 승인과정에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새터민훈련과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수강생 모집이 어려워 개설률이 매우 낮다.

① 하나원 위탁훈련

- 고용노동부는 '06년부터 '11년 1월까지 하나원과 협약을 통해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에서 한 달간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북한이탈여성 훈련을 실시. '11년부터 중단.

23) 고용노동부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2010 고용노동백서」, 「2011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통일부(2011)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김연희 외(2010)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등을 참고.

〈표 III-15〉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의 북한이탈여성 기초직업적응훈련 실적

| 연도 | 기간 | 과정 수 | 과정명 |
|------|--------------|------|--------------------------------------------------------------------------------------------------------|
| 2006 | 3. 22~12. 31 | 9 | 기초측정, 봉제, 귀금속, 염색, 기초전자, 캐드, 네일아트, 피부미용, 사진편집, 재학의학 중 9과정 진행 |
| 2007 | 1. 1~12. 31 | 10 | 기초측정, 봉제, 귀금속, 염색, 기초전자, 캐드, 네일아트, 피부미용, 사진편집, 재학의학 중 10과정 진행 |
| 2008 | 1. 1~12. 31 | 10 | 기초측정, 봉제, 귀금속, 염색, 기초전자, 캐드, 네일아트, 피부미용, 사진편집, 재학의학, 인터넷쇼핑몰, 포장가공 중 10과정 진행 |
| 2009 | 1. 1~12. 31 | 11 | 기초측정, 봉제, 귀금속, 염색, 기초전자, 캐드, 네일아트, 피부미용, 사진편집, 재학의학, 인터넷쇼핑몰, 포장가공, 제과제빵, 아동복지케어, 영상그래픽 중 11과정 진행 |
| 2010 | 1. 1~4. 30 | 14 | 기초측정, 봉제, 귀금속, 염색, 기초전자, 캐드, 네일아트, 피부미용, 사진편집, 재학의학, 인터넷쇼핑몰, 포장가공, 제과제빵, 아동복지케어, 영상그래픽, 전산회계 중 14과정 진행 |
| | 5. 1~12. 31 | 2 | 피부미용, 봉제 |
| 2011 | 1. 1~1. 31 | 2 | 피부미용, 봉제 |

자료: 한국폴리텍여자대학 산학협력단(2011)

② 거주지 직업훈련

- '10년까지는 직업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와 직접 훈련위탁체결을 맺고 실시하는 단독반 수강 시에만 훈련비와 특별수당 지급.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지원
 - '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²⁴⁾ 내에서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
- 북한이탈주민 중 직업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07년 894명, '08년 772명, '09년 881명, '10년(6월 기준) 780명임(<표 III-16> 참조).

24)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가 2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총 훈련비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임.

〈표 Ⅲ-16〉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직업훈련 현황

(단위: 명, %)

| 연도 | 실시인원 | 수료인원 | 중도탈락인원 | 중도탈락률 | 취업인원 | 취업률 |
|--------|------|------|--------|-------|------|------|
| 2007 | 894 | 629 | 231 | 25.8 | 247 | 37.3 |
| 2008 | 772 | 606 | 139 | 18.0 | 261 | 41.3 |
| 2009 | 881 | 688 | 171 | 19.4 | 285 | 40.2 |
| 2010.6 | 780 | 76 | 114 | 14.6 | 20 | 21.3 |

주 1: '07-'08년은 다음연도 12월 기준, '09년 및 '10년은 6월말 기준

주 2: 취업률: 수료인원+조기취업인원/취업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통일부 내부자료, 김연희 외(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③ 취업보호제도

◦ 취업보호담당자 지정·운영

-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업무를 담당하며, '10년말 기준, 전국 55개 고용센터에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취업보호담당관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안내 △취업알선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고용실태조사 △취업보호자료 작성·관리 등을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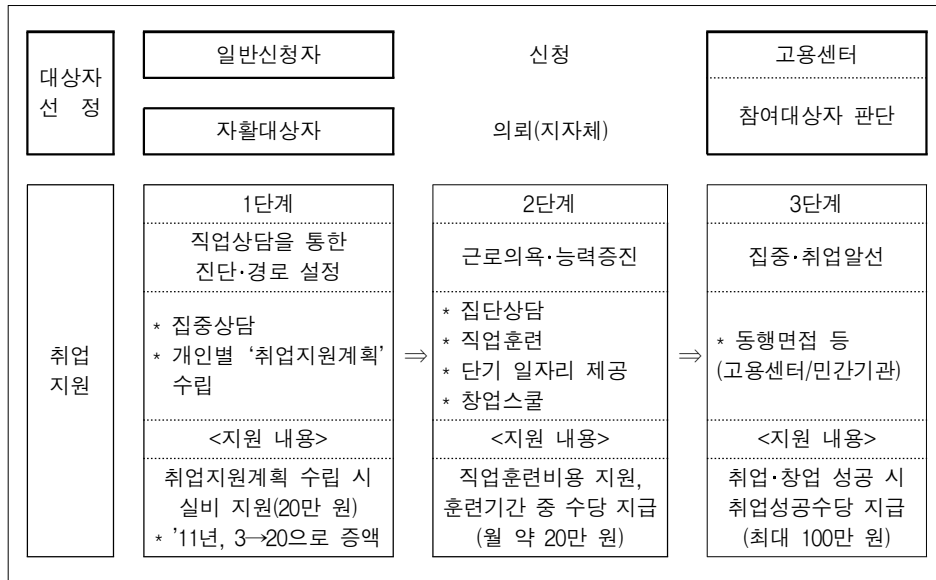
④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

◦ 종교단체, 기업 연계

- 종교단체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승의교회의 북한이탈주민고용 사회적기업 설립 등)
- 대기업의 1사 1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경영 지원·제품구매 등 추진

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만 18세~6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단 후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자료: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그림 Ⅲ-2]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개요

다. 행정안전부²⁵⁾

행정안전부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 조성’이라는 핵심과제의 하나로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추진,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알선 지원, 통일학교와 귀농학교 운영, 정보화교육, 이북도민 출신 기업가와 연계·연수 등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 계획」 마련

-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내 고용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 계획」을 마련함.
- 동 계획은 '11년 2월부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하

25) 행정안전부의 『2010 행정안전백서』, 2011년도 「행정안전부 업무추진계획」,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등을 참고.

는 인원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임.

-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은 조직 및 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현·퇴직 공무원 등을 1:1 멘토로 지정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11년 5월 기준, 공직에 채용된 북한이탈주민 수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안산시 등 33개 기관에 걸쳐 50여명임.
 - 국가기관 24명: 고용부 10명, 행안부 3명, 지경부 2명, 문화부 1명, 농식품부 1명, 통일부 1명, 경찰청 1명, 문화재청 1명, 중기청 1명, 통계청 1명, 농진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 지방자치단체 26명: 서울시 2명, 인천시 3명, 대구시 1명, 경기도 18명, 충청북도 1명, 경상북도 1명.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은 '11년 7월부터 폐지함.
- '11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추진할 계획임.

②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

- 북한이탈주민 등 신(新)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추진.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년 7월부터 직무교육 및 외국어교육을 사이버교육을 통해 실시함.

③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연결·취업 알선

- 북한이탈주민-이북도민 간 가족결연은 이북도민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후견인 역할을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지난 '04년부터 매년 60-70쌍의 가족결연을 추진하였으며, '08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상·하반기로 결연식을 개최함.

- 북한이탈주민 취업신청자의 연령, 경력, 희망직종 등을 감안하여 이북도민 출신 기업가에 취업 알선('10년 5월부터)
-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북도민 사회에서 지속적 지원, 관리

④ 북한이탈주민 통일학교 개교('09년)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전통민속예술·요가수련반 등 운영(연 3,000명 수준).
- 부산, 대전 지역, 경기도 등 찾아가는 통일학교 운영

⑤ 북한이탈주민 귀농교육 및 통일영농학교 개최²⁶⁾

- 경기경찰청과 함께 '11년 3월에는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4월에는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각 3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실시함.
- '11년 6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북한이탈주민 통일영농학교 1기 입학식을 개최함.
 - 통일영농학교는 서초서가 북한 이탈민의 농촌 조기 정착을 위해 통일부·농촌진흥청·함께일하는재단 등 민·관 관련기관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 통일영농학교 1기 신입생은 이탈민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과정은 7개월간의 현장실습교육, 성공한 농업인과 1대1 멘토링 등으로 구성함.

이상 정부정책을 보면, 통일부는 하나원 내의 기초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장려금제도를 통해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훈련참여와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전면 도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사회적 기업 설립, 기업체와의 취업협약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은

26) 연합뉴스(2011.3.8.), “새터민들 ‘정책 지원되면 꼭 귀농하고파’”, 중앙일보(2011.6.27.), “서초서, 이탈민을 위한 ‘통일영농학교’ 개교” 등의 기사 참고.

과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으나, 최근 특정 직종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존 직종탐색 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1인 1직종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환하여 여성은 4개 직종 중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훈련받는다.

’10년까지는 한국폴리텍여자대학에서 위탁훈련을 하였으나, ’11년부터는 훈련직종별로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의 이러한 훈련정책 변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축소하고 제한된 직종에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최대석 외, 2010).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표 Ⅲ-17〉 훈련 및 취업 관련 정책(’11년)

| 부처 | 정 책 |
|-----------------------|------------------------------------------------------------------------------------------------------------------------------------------------------------------------------------------------------------------------------------------------------------------------------------------------------------------------------------------------------------------------------------------------------------------------------------------------------------------------------------------------------------------------------------------------------------------------------------------------------------------------------------------------------------------------------------------------------------------------------------------------------------------------------------|
| 통 일 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기초직업훈련(1인 1직종 집중훈련) - 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간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구직알선, 상담 및 사후관리 실시 - 장기취업 장려금, 고용지원금 ○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설립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사후관리 실시 - 사회적 기업 컨소시엄 설립·지원 추진 등 ○ 미소금융 확대, 창업교육 등을 통한 소자본 창업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자본 창업 희망자 대상 창업교육 및 인턴십 등 운영 - 경영개선, 업종전환, 성공전략 컨설팅 등 소자본 창업능력 배양 |
| 고 용 노 동 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배움카드 발급 - 북한이탈주민 훈련과정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승인 ○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보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 직업훈련기관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향상 지원 ○ 취업보호 담당자 지정, 운영 ○ 사회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60 ●●●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 부처 | 정 책 |
|-----------|--------------------------------------------------------------------------------------------------------------------------------------------------------------------------------------------------------------------------------------------------------------------------------------------------------------------------------------------------------------------------------------------------------------------------|
| 행정 안전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알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보조인력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 - 이북 출신 기업가와 연계, 연수 및 취업 알선 ○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 강화 ○ 귀농교육 및 통일영농학교 ○ 통일학교 운영(이북5도청, 연 3,000명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결연, 취업과정(정보화, 요양보호사 등), 소양과정(심리상담 등) |

IV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 | |
|-----------------|----|
| 1.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 64 |
| 2. 소결 | 73 |

앞 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훈련과 취업지원 실태 및 정부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여성에게 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면담은 하나센터, 폴리텍여자대학, 여성발전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북한이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 경험이 있거나 훈련을 추진 중인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방문면담, 전화면담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²⁷⁾. 면담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²⁸⁾, 피면담기관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이 아닌 기관분류를 명시하고, 피면담기관은 정착지원기관과 교육훈련기관으로 분류하였다.

〈표 IV-1〉 피면담자 인적 사항

| 구분 | 기관 | 비고 |
|-------------|----------|----------------------------------------------------------|
| 1. 정착지원기관 | 00하나센터 | 서울 지역 |
| | 00하나센터 | 서울 지역 |
| | 00하나센터 | 서울 지역 |
| | 00하나센터 | 서울 지역 |
| 2. 직업교육훈련기관 | 00대학 | 북한이탈여성훈련과정 운영 경험 |
| | 00여성발전센터 | 북한이탈여성훈련과정 운영 경험 |
| | 00직업전문학교 | 북한이탈주민 훈련과정 운영 (*북한이탈여성으로 훈련기관에서 상담업무) ²⁹⁾ |
| | 00직업전문학교 | 북한이탈여성 훈련과정 운영 경험 |

27) 훈련과 취업의 문제는 기관관계자만이 아니라 북한이탈여성 면담을 통해서도 수렴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대상 면담에 국한하여 실태 이해에 한계가 있음. 피면담자 중 1인은 북한이탈여성으로 오랫동안 훈련과 취업상담을 담당하여 어느 정도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었음.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은 II장의 실태조사와 선행연구를 참고하기로 함.

28) 면담내용 중 피면담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북한이탈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그대로 삽입된 경우가 있음.

29) 북한 출신 훈련기관 관계자의 면담내용은 *표 표시.

1.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가. 기초 취업역량 부족

북한이탈여성들은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언어구사 능력, 문화적 소통력, 정서적 안정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와 역량이 보완되지 않으면 취업을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기가 어렵다.

○ 언어소통의 제약

북한이탈여성들은 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 이해 및 구사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교육훈련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특히 영어를 배우지 못하여 컴퓨터교육에 어려움이 크다. 훈련을 할 때도 교육수준과 언어 수준 차이로 남한사람과 합반을 하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억양과 발음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

“말은 알아듣는데 뜻을 빨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교육하면 따라가질 못하죠.”(2)

“우리 센터는 국립국어원을 통해 언어클리닉과정도 운영했으나 단기에 교육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요... 외래어교육, 훈련과정 관련한 영어교육도 필요하고...”(1)

“영어가 전혀 안되고, 교육용어 이해력이 떨어지죠... 외래어, 전문용어 등... 자격증 취득할 때 필기시험에 애로가 있습니다.”(2)

○ 문화적 차이

북한이탈여성들과 우리의 문화적 격차는 다문화여성들보다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에서 성장한 다문화여성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탈북여성은 다문화여성이나 경력단절여성과 전혀 다르게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문화여성들은 대부분 출신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았지만, 탈북여성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그래도 낫지만... 비슷하게 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2)

○ 직무수행 기초능력 부족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은 물론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에 적응하기 어렵다. 여자는 사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북에서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단기간의 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어렵다.

“사무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하기 쉬운가요? 북에서 농사일 노동일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은데...”(2*)

○ 정서적 불안정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많고 우울증도 심각한 편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학습이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자존심을 다치면 교육이고 취업이고 다 그만두어 버리기도 한다.

“기본적 문제가 있죠. 정서 안정이 되어야 안정적 취업유지가 가능한데... 탈북과정에서의 성폭력, 양육스트레스, 사회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이 많아요.. 방치되어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1)

“시련을 겪어서인지 성격이 역썩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많이 하고... 학생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2)

“자존심이 너무 강하죠... 내가 북에서는 이런 일을 했는데 나더러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하기도 하고... 습관을 바꾸기 어렵죠...”(1)

“자존심이 강한 건 북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굶어 죽어도 빌어먹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는 거죠...”(2)*

“멘토링을 해줘도 멘토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북한사람들 말만 따릅니다... 앞에선 알아들은 듯한데... 뒤돌아서면 다르고...”(2)

“우리 학원에 오면 정신교육, 인성교육 많이 시킵니다... 남한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지원받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도덕적으로 의무감을 가져라... 80에서 90%는 개선되어서 나갑니다...”(2)*

나. 훈련 참여 및 성과의 미흡

북한이탈여성들은 각종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그들끼리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선호한다. 따라서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맞춰주는 훈련기관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나 결과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 취업에 대한 급박감으로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지 못함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탈북시켜야 한다는 급박감, 당장의 생계문제로 좋은 일자리보다 아무 데라도 취업하기에 급급하여,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기 어렵다.

“교육훈련보다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니다. 취업에 대한 급박감이 크죠... 북에 있는 가족의 탈북 지원을 위해 짧은 시간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1)

○ 취약한 직업정보와 정보취득 경로의 폐쇄성

그들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전문가를 통한 정보보다 북한이탈자들끼리의 정보에 많이 의존한다. 취업 가능한 직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관련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은 차라리 낫지만, 아님 사람은 직업에 대한 감이 없어요. TV 속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있습니다.”(2)

“젊은 층에게는 장기적 대비를 하라고 조언하나 전문가의 멘토링보다 자기들끼리의 사회와 정

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멘토링이 쉽지 않습니다”(2)

○ 생계와 훈련의 병행 어려움

북한이탈여성들은 정착 초기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꼭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려고 하기보다 지원금액과 훈련수당을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편이다.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훈련은 받지 않으려 해요. 지원금에 익숙해져 있죠. 500시간 교육훈련을 채우면 장려금을 받는데, 여성발전센터는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가질 않죠.”(1)

“훈련과정을 선택할 때, 하고 싶은 것보다는 훈련시간을 채우고 수당을 받기 위해 하기 쉬운 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1)

“교육의지가 강한 사람이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당과 교통비를 타자는 목적으로 옵니다... 교통비, 식비 나오고... 우선선정직종훈련은 더 나오고... 6개월 지나면 생계비 중단되는데 교육 받는 동안은 생계비가 나오니 목매는 사람들도 있어요.”(2)*

“훈련과 일을 병행하려고 해요. 훈련시간이 늦게 끝나면 일하기 어려워니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훈련기간 동안은 생계지원이 필요해요. 훈련수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2)

○ 기술 습득 및 숙련의 부족

하나원에서 받는 기초직업교육과 하나센터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배우는 데 부족하다. 실제 취업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중장기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제대로 배우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장려금 때문에 우선선정직종 훈련도 많이 받지만 숙련도의 제약과 취업처의 편견으로 취업은 훈련받은 것과 상관없는 곳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을 배워도 힘들죠. 이론과 실전이 다르고... 손발이 안 따라가는 거죠... 남한사람들 오랫동안 익힌 기술을 몇 달 배워도 숙련이 떨어져서...하나원 3개월 교육과정 중에 한 달간 기초직업교육 받지만 만족 못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기술이 되어야 취업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에 와서 6달에서 10달 정도 교육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원 130시간, 하나센터 60시간

하면 310시간 이상 해서 500시간 채우면 장려금을 받으니까 하루 5시간씩 한 달이면 100시간... 최소 석 달 교육은 더 받아야죠...”(2)*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요새 사이버대학에 많이 갑니다... 수강료가 면제죠... 직업학교 마치고 1년에 50명... 수료생의 20% 정도...”(2)*

다. 훈련기관 접근성의 제약

북한이탈여성의 신상 정보는 보안 대상이기 때문에 훈련기관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수강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센터나 경찰서 등은 보안상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훈련기관들이 훈련대상 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다. 그 결과 훈련과정을 개설해도 개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일부 훈련기관 외의 훈련정보에 취약한 상황이다.

○ 훈련생 모집의 어려움

하나원에 있는 3개월 동안은 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교육이나 훈련하기 좋지만, 하나원을 나가면 모아서 교육훈련하기 어렵다. 하나원을 나가면서 주택을 배정받는 경우는 거주지 인근 하나센터에서 지원을 받지만, 주택 배정이 안 되어서 임시거주지 인근의 하나센터로 갈 경우 도중에 주택이 배정되면 주거지로 떠나버리므로 교육을 하기 어렵다. 그들의 연락처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훈련기관들이 수강생 모집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하나센터 나가며 주택을 받습니다. 주택을 대기하는 경우 임시거주지 인근 하나센터를 다니는 데 하나센터 교육 도중에 전국 주거지역으로 흩어지면 모아서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원 안에서는 교육이 가능하나 하나원 밖으로 나가면 모으기 쉽지 않죠.”(1)

“하나원에 가서 우리 기관과 훈련과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은 자발적이고 학원에서는 그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원을 채우기 어렵죠. 게다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전국팔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새터민훈련과정이 있어도 거주지와 훈련기관의 거리가 먼 사람들은 훈련받으러 오는 게 어렵죠. 하나원에서 나가면 관리가 안 되니, 하나원 내에서 훈련

기능을 강화해야죠. 지금은 머무르다가 내보내는 수준이죠.”(2)

○ 전용훈련과정의 접근성 부족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만 모여서 받는 교육훈련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여성훈련기관들이 일부 전용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남한여성들이 많은 시설에 가는 것을 꺼려하므로 그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터민들은 남한사람과 합반하면 어렵습니다. 혼합하는 데는 죽어도 안 갑니다. 업신여기고 말 하는 거 옷 입는 거 차이내고...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 취급을 안 하는지... 자존심 상하고 눈치 보여서 기분 나쁘다고 다 때려치우고 나옵니다. 혼합학급 하는 데는 새터민 남아 있는 데 없습니다. 서로 불편해서... 여기는 새터민이 많아 편안하다고... 멀리 서도 두 시간씩 차 타고 옵니다.”(2)*

○ 정착지원기관과 여성훈련기관과의 연계 취약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의 의지와 노력이 있으나, 수강생 모집이 되지 않아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훈련기관들이 '11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과정으로 승인 받은 북한이탈여성 훈련과정들 중 대부분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센터 수료 후 직업훈련기관으로 많이 가나 여성전문훈련기관들로 연계는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 취약계층 직업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새터민여성훈련을 추진하고 있어요. 새터민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서 간병인과정을 개설했으나 모집이 잘 안됩니다. 탈북여성 정보공개가 안 돼 문자홍보도 할 수 없어요. 하나센터, 경찰서 등 탈북관련 기관에서는 수강생 연계를 안 해줘요. 가가호호 방문까지 했지만... 취업가능성이 낮은 고연령자만 극소수 신청하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주는 훈련수당이 지원되지 않아서인지... 대부분 어딘가에서 훈련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많고...”(2)

“하나센터에 홍보를 부탁하는 훈련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해주기도 하지만, 개별적 홍보는 해줄 수 없어요. 나중에 취업이 잘 안되면 왜 거기를 소개해줬냐고 원망 들을 수도 있고, 여러 훈련기관들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탈북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

고... 탈북자 명부는 보안대상입니다. 대상자 스스로도 공개를 꺼립니다.”(1)

“하나원과 교육기관의 연결의 끈이 없어요.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훈련생을 모집할 수도 없고... MOU를 맺었어도 하나원 가서 홍보할 기회가 생기는 정도고 학생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MOU가 실질적 도움은 못 주는 거죠. 하나원에 직업담당인력이 적어 많은 탈북자의 훈련을 관리하기 어려워요.”(2)

○ 여성직업훈련기관의 북한이탈여성훈련 전문성 부족

북한이탈여성들은 하나센터 수료 후 탈북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여성훈련기관들은 직업전문학교에 비해 탈북여성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탈북여성들이 원하는 훈련과정의 조건에 관한 정보에 어두운 편이다.

“직업전문학교는 훈련수당을 30만 원 이상 주는데... 여성발전센터는 수당에서 경쟁력이 없어요.”(1)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부 수준 이상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1)

“부천 송내에 있는 모 직업전문학교만 잘 됩니다. 다들 거기로 가요... 탈북자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직업전문학교는 홍보력이 강합니다. 탈북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탈북자 입소문이 중요해요.”(1)

“직업훈련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500시간³⁰⁾을 채우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원 130시간, 하나센터에서 60시간 채우면, 나머지 310시간을 채워야 하죠. 그래야 장려금을 받으니까요.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장기과정을 원하는 거죠...”(1)

라. 취업 및 취업유지의 어려움

북한이탈여성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직업역량의 부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30) 500시간 이상의 노동부 승인 훈련을 수료하면 직업훈련장려금이 지급됨.

○ 취업의 기준은 안정적 직업보다 돈

북한이탈여성들은 각종 지원금을 받는 정부지원 의존 시기에는 훈련이나 취업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심지어 취업을 하면 지원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여, 지원금 수령에 제약이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의 정규직 취업보다 비정규직 취업을 선호하기도 한다.

“취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없는 지원금과 취업 후의 소득을 비교한 후 취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취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금보다 별로 많지 않으면 취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1)

“사회 나가면 기초수급대상으로 지원받는데, 취업하면 수급금이 삭감 중단되므로 당장의 수급금 때문에 장기적 준비를 안 합니다. 주택지원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자립해야 하는데 그때 취업의지와 역량을 갖추기에는 이미 늦죠... 초기에는 사회적응하기만도 힘들고... 훈련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요... 탈북 3년 정도 이상, 주거지원 중단으로 자립이 절실한 시기에 훈련프로그램 투입이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2)

“정규직 취업보다 바로 취업하고자 합니다. 틀 있는 직장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이 되면 수급비가 단절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정규직 취업을 손해로 생각하고 수급권이 유지되는 6개월까지는 취업 안 하려고 합니다. 수급권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을 선호합니다. 수급권 6개월을 최대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1)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도 지원금을 최소 6개월을 지급해야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2)

“정규직 취업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 월급이 작으니 생계비 받고 알바하는 게 더 낫죠... 월급이 150은 되어야 취직 생각하는데...”(2)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도 봉급이 적다고 나갑니다. 배운 기술은 놓고 떠나는 거죠.”(2)*

○ 성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갖기 어려움

북한이탈여성들은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공사례를 알려서 삶에의 희망과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강생 중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바뀝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현재 취직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면 희망을 갖고 따라가지 않을까...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사람들 사례를 못 보니까... 솔직히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죠...”(2)*

○ 취업직종 제한

그들은 생계와 가족탈북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 때문에 과거 경력의 활용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북에서 종사하던 직업이나 전공과 연결된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북에서의 직장,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다. 실제 취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단순노무직 취업이 많다. 사무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억양과 문화 차이로 주민과 많이 접촉하는 직업은 갖기 어렵다. ‘헐한 일자리’라도 정부가 알선해줄 것을 바라기도 한다.

“돈 벌려는 의지는 강하나 할 일이 없습니다.”(1)

“취업직종은 제약이 되죠... 새터민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은 6개월 지나도 생계비 줘야 하고 능력에 맞는 헐한 일자리라도 알선해줘야 합니다.”(2)*

“간병사, 요양보호사는 50대, 60대에겐 인기가 있지만... 취업 목적으로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좋은 일이라는 생각 정도... 뭘 하는 건지 직무를 정확히 모르고 시작합니다.”(1)

“컴퓨터 기초를 배우고 나면 사무보조가 가능하죠. 전산, 세무회계 배워 회계, 경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건 잘 가는 쪽이고... 식당, 이발, 미용, 제과제빵, 수선, 노래방 쪽으로... 배운 것과는 거리가 먼 데 갑니다.”(2)*

○ 일과 가정 병행에 어려움

북한이탈여성들도 경력단절여성들처럼 일과 가정(가사, 육아)의 병행에 애로를 겪는다. 보육기관 연계를 희망하지만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하나원 퇴소하고 하나센터로 오면 바로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라 대기해야 해서, 아이 때문에 취업을 못합니다.”(1)

○ 차별로 취업 및 고용 유지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무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심해서 취업하고 직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조선족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선족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취업을 해도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용 유지가 어렵다. 더구나 연령차별까지 겹치는 40대 이상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 크다.

“북쪽 사람 솔직히 안 씁니다... 면접 가서 다 떨어집니다... 취업해도... 3년차 취업장려금이 1,800만 원 정도인데... 한 직장엔 오래 못 있어서... 직장생활 적응이 어렵습니다. 차별도 있고 눈치도 주고 학력도 부족하고... 우릴 누가 인정해줄까 사람 취급 해줄까? 실제 정착하기 어려워요.”(2)*

“40대 이상은 회사들이 안 받습니다. 식당은 되는데... 식당은 직업이라기 그렇잖아요.”(2)*

“북한이탈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이나 다문화여성보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문화도 모르고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취업하기 어려워요.”(2)

2. 소결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이나 다문화여성들과 일정 부분 어려움이 공통되지만, 일면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으로 오면서 단절되었고, 자본주의사회로 오면서 문화단절도 겪게 된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일과 가정 양립 문제, 보육문제, 연령 제약 등은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해당한다. 정서 불안과 자신감 부족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보육의 어려움은 더 크며, 취업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연령차별 외에 북한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언어이해력 부족, 훈련과 생계 병행의 어려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기 어렵고,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및 기본지식 부족, 숙련도 부족, 취업 가능 직종의 제약, 편견으로 인한 취업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 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훈련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훈련과정을 폐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여성들은 그들에게 잘 알려진 소수 훈련기관들 외에 다양한 훈련기관과 과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훈련기회와 취업연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을 면담한 선행 연구(김석향 외, 2009)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들은 “맞춤한” 훈련기회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본 연구의 기관 면담 결과, 이는 유망직종의 문제에 국한된다기보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훈련과정 선택 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지원요건들을 충족시켜주는 훈련과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의미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 연령 차별, 능력 부족, 문화 격차, 소통의 문제,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은 북한이탈여성과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이다.

V

결론 : 훈련과 취업지원 효율화 방안

| | |
|---------|----|
| 1. 요약 | 77 |
| 2. 정책과제 | 79 |

1. 요약

전체 북한이탈입국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전체의 약 70%에 달하고 2006년 이후 70.0%를 넘어 2010년 75.7%에 이른다. 여성들의 탈북사유는 보다는 삶의 기회(63.7%)를 찾고 경제적 어려움(59.4%)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다. 연령으로는 30대가 약 3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가 약 27%, 20대 약 19%로 20~49세가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재북 직업별로는 무직부양(54.5%)과 노동자·농장원(36.3%)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고, 학력은 고등중학교 학력이 74.6%로 가장 많다. 이는 대체로 학력이 낮고, 직업경력이 없거나 단순노무직 경력을 가진 대다수 북한이탈여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어려운 정책과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일했던 여성들도 2.6% 정도 있으나, 전체 북한이탈여성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그 학력과 경력이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데 제약이 크므로, 결국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역량의 부족 외에 북한이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건강문제, 육아문제가 크다. 이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같으나 특히 건강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현재 제조업(24.4%)과 음식숙박업(23.3%), 서비스업(11.8%)에 단순노무직/공장노동자(32.4%)와 판매·서비스직(26.5%)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여성 평균근로소득은 119만 원으로(허선행 외, 2010), 대체로 노동시장의 하위층에 편입되어 있다. 취업을 위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보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훈련을 받을 시간 부족, 교육용어 및 내용 이해의 어려움, 전용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 보육문제 등으로 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매우 높으며, 컴퓨터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직업기술교육 외에 언어소통교육, 인간관계교육, 직업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이나 다문화여성들과 일정 부분 어려움이 공통되지만, 일면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으로 오면서 단절되었고, 자본주의사회로 오면서 문화단절도 겪게 된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일과 가정 양립 문제, 보육문제, 연령 제약 등은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해당한다. 정서 불안과 자신감 부족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보육의 어려움은 더 크며, 취업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연령차별 외에 북한출신자에 대한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언어이해력 부족, 훈련과 생계 병행의 어려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기 어렵고,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및 기본지식 부족, 숙련도 부족, 취업 가능 직종의 제약, 편견으로 인한 취업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 게다가 훈련과정 선택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선시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여, 장려금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응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직종,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정보교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상정보 보안 때문에 훈련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훈련과정을 폐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현재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훈련과 취업에 관한 정보와 기회가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정책방향이 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전환되고,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과 하나센터를 통해 기초직업교육과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지

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보화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하나원 내에서의 직업훈련은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도 통일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은 과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으나, 최근 특정 직종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북한이탈여성의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하나원 내 훈련방식이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축소하여 제한된 직종에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북한이탈여성들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북한이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에는 관련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과제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은 대규모 실업상황에서 실업에 직면한 개인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에 필요한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준비해야 했다. 전체 동독인의 70%가 통일후 이전 직업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을 수행해야 했던 상황에서 직업능력 재교육은 물론 새로운 사회체제의 가치, 행동양식, 생활관련 지식과 정보의 학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강구섭, 2009).

북한이탈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도 직업능력 재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다수 북한이탈여성은 취업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취약한 인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관리직이나 군인, 전

문직, 예술체육 등에 종사했던 여성들도 약 4% 정도 있으나, 절대 다수가 노동자와 무직이므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과 취업지원 정책도 우선적으로 이들을 타겟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학력 전문직 북한이탈여성들보다 저학력, 단순노무직 경력 또는 무경력의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고학력 전문직 경력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³¹⁾은 추후과제에서 심층적으로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북한이탈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초기 입국자의 상황과 요구, 그들의 당장의 생존을 위한 취업 요구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경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통일부가 하나원 내 직업훈련, 하나센터의 취업지원, 장려금, 고용지원금 지급 등을 직접 관할하면서,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훈련과 취업지원의 전문성은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취약계층의 범주일 뿐이고 핵심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정책의 성과는 정책대상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모두를 요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책의 핵심인 통일부가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이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해봐야 하며, 하나원 내의 훈련·취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설보호 이후 거주지 보호단계에서의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센터에 연계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을

31) 김화순(2010).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참고

받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을 하는 경로도 고용센터와 같은 공공 경로보다 북한이탈주민이나 지인을 통하는 비율이 높아,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가 적절히 가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나원에서의 일차적 직업훈련을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느냐의 논란보다는 거주지 보호단계에서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의 연계 강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립지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훈련과 취업에 있어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더욱 강한 강도로 겪고 있다. 직업기술역량 부족, 직업의식 및 자신감·책임감 부족, 대인관계 능력 부족, 가사와 양육 등을 병행해야 하는 일·가정 양립의 애로,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연령차별 등에 있어 경력단절여성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도 결혼이주여성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여성 특유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북한이탈여성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그들이 안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문제와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해결하도록 접근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지원서비스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새일센터사업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여 관련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 하나원 내 훈련·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전문성 제고
- 하나센터와 고용센터, 새일센터의 연계 강화
- 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 지원기능 강화

□ 하나원 교육단계에서의 여성 직업체험 다양화 및 새일센터 연계

현재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초기에 한 직종을 집중훈련하는 방식보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과거의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에서의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기 전에 하나의

직종을 선택하여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취업직종 제약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최대석 외, 2010). 이러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본다. 입국 3개월 안에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집중훈련 전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와 체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요 훈련 및 취업지원제도와 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정보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하나원에서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우선적으로 제공되, 즉각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특정직종 집중훈련기회를 함께 제공하여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나원 내에서의 여성 유망직업 체험 기회 확대
- 여성직종 훈련 및 직업상담에 새일센터의 참여
- 진로취업지도 시 여성전문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하나센터의 여성 훈련·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3주간의 하나센터 지역적응교육기간 동안 훈련과 취업에 역점을 두기는 어렵다. 지역적응에 초점을 두고 하나센터 이후 활용할 수 있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일 것이다. 고용센터의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은데, 하나센터에서 나간 후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급박함이 있는 사람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훈련제도 소개, 지역훈련기관 설명회, 견학, 현장체험 등 훈련과정 결정을 위한 탐색과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학습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에 따라, 훈련정보에 어두운 북한이탈여성들의 계좌 발급과 훈련과정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훈련상담을 종전보다 강화해야 한다. 하나센터 이후 그들끼리의 정보교류를 통해 특정 훈련기관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나센터 교육단계에서 정보와 상담 제공을 강화하여 그들만의 정보에만 갇히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지역의 공공 여성훈련·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나, 하나센터에서는 새일센터를 다른 민간기관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연계 대상으로 생각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은 고용센터에서의 상담 외에 새일센터에서의 훈련·취업상담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면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훈련기관, 프로그램 설명회에 새일센터 참여 필수화
- 새일센터에서의 여성훈련상담 필수화: 파견 상담
- 훈련계좌 발급을 위한 상담 강화

□ 하나센터와 새일센터 연계로 훈련생 모집 협력체제 구축

북한이탈여성 규모가 커지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 등 공공여성훈련기관들이 북한이탈여성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나,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아 대다수 강좌들이 폐강되고 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훈련을 운영해온 직업전문학교들도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으로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좌제로 훈련과정 선택권이 완전히 수요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전용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공공훈련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특별보호대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여성훈련기관에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개별 기관에서 하나센터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교육과정에서 여성전문 훈련기관을 소개하여 여성들이 훈련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나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하나센터와 새일센터 간의 협약 체결로 공식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부와 통일부(하나원), 새일센터와 하나센터의 MOU 체결
-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 취업지원인프라와 하나센터의 공식연계망 구축

□ 공공여성훈련기관(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훈련 서비스 전문화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전문성이 강한 기관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전문성은 미흡하

므로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전망에서 이 기관들의 북한이탈여성 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원에서의 훈련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우므로 이후 단계에서의 북한이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므로 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지침 개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일부 새일센터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새일센터 북한이탈여성훈련 시범사업으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대상 북한이탈여성 이해 및 상담교육
- 북한이탈여성출신 상담사 채용

□ 북한이탈여성 전용 훈련과정 운영 및 학습환경 조성

북한이탈여성들은 교육용어 이해 수준이 다르고, 남한여성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꺼려하므로, 전용 훈련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의 강점과 취업가능성, 학습수준을 고려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되 북한이탈여성들이 원하는 훈련의 조건(훈련시간, 취업조건, 정부지원 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용훈련과정 개설만으로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훈련환경 자체를 북한이탈여성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 여성대상 단기 훈련만으로는 숙련도와 자신감 부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장기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도 있다.

- 전용 훈련과정 운영
- 중장기 훈련과정 개설
- 북한이탈여성친화적 훈련환경 조성

□ 지원금 수령을 최대화할 수 있는 훈련조건 충족

여성가족부와 여성전문 훈련기관들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으나, 그들의 특성과 행동양식을 잘 모른 채 접근함으로써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여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접근하듯이 유망취업과정 개설만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면담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들은 정부 지원금제도(훈련취업 장려금, 기초생계수급금 등)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취업과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는 일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들이 받고자 하는 지원금을 수령하면서 훈련이 진행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최소 1년 정도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 의존하려 하고 훈련과정이나 기관 선택도 그러한 지원을 받게 해주는 곳을 선택한다. 그들에게 지원금은 매우 중요한 생존 자원이므로 훈련기관들은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훈련과정을 개발해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하나원, 하나센터 훈련과 합산하여 500시간 이상일 때 훈련장려금 지급)과 훈련직종(자격취득직종,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장려금 지급), 취업 형태(기초수급비수령이 가능한 일자리) 등을 고려해 주어야 훈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일센터)는 훈련장려금 지급조건인 500시간 훈련시간 인정대상 기관에 포함되므로,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훈련과정을 기획하면 북한이탈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원, 하나센터 훈련과 합산하여 최소 500시간 이상인 훈련시간 편성
- 자격취득 장려금과 우선선정직종훈련 장려금 취득 가능한 훈련과정 운영
- 훈련수당, 기초수급비 수령이 가능한 훈련 제공

□ 현장 직업체험 및 사후관리교육 연계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남한사회의 직업과 직장문화는 매우 생소하여 취업 전에 일을 체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훈련받은 직업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수적이며, 직무에 숙련될 수 있도록 인

턴 기회와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 이후 직장에서의 직무상 겪는 애로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후관리프로그램도 연계되어야 한다.

- 훈련과정에 업무적응, 숙련을 위한 인턴과정 포함
- 취업 후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적응교육 및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들 공통의 문제인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문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 여성들의 안정적인 훈련과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내에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원, 하나센터 교육단계에서 지역 보육서비스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새일센터의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하도록 한다.

- 새일센터의 일·가정 양립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 보육기관 정보 제공

□ 고학력 북한이탈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북한에서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였던 여성들의 직업경력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 훈련지원도 중요하다.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협력 하에 학력 인정, 자격인정, 재교육 등의 제도가 지원되고 있다³²⁾. 전문분야별 경력 재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대학, 대학평생교육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고학력 전문직이라고 해도 북한에서의 경력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고학력 북한이탈여성 재취업에 적합한 직종 발굴과 직업훈련과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전문분야별 경력 재교육 방안 마련

32) 의사의 경우,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면 의사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2009년 현재까지 의사고시를 통과한 11명의 탈북인 의사가 배출. 교사의 경우 2010 현재 한겨레학교 3명, 기타 학교 1명이 일하고 있음. 탈북인 교사출신자들은 교육개발원의 NK아카데미에서 재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서울시 교육청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고 있음(김화순, 2010).

- 대학평생교육원, 새일센터의 고학력 북한이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개발
-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 훈련과정과 사회적응지원을 연계한 포괄적 생활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여성들은 하나센터 이후 훈련기간에도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총체적 서비스를 선호한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직업학교로 무조건 모이는 경향이 있다. 공공여성훈련기관들도 그들에게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훈련과 취업,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그들의 전반적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총체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서문제, 언어, 의식, 문화, 취업,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포괄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훈련참여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훈련·취업 상담과 함께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 상담사 재교육
- 가족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기관 등에 연계

□ 언어교육, 문화적응교육 병행

북한이탈여성들은 직업역량 취약 외에 언어문제, 정서문제, 문화적 차이 문제 등 총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소통에 큰 문제를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의 조치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격차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장한 다문화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은 사회 적응과 직장생활 적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 북한이탈여성 계좌제 훈련과정으로 언어와 문화적응교육 승인
- 직업훈련과정에 직장문화 적응교육 포함
-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북한이탈여성 언어교육프로그램 개설

□ 이미지 개선과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성공사례 홍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취업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크다. 남한사람들의 편견 해소와 사회적 수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성공적인 사회적응 및 취업사례를 많이 접하지 못하여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성공사례의 홍보는 일반인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희망과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분보안상 익명으로라도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들이 자립의지를 갖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이탈여성 취업 및 자립성공 사례집 발간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배포
- 다문화교육에 북한이탈주민 포용 교육 강화
- 여성가족부의 관심과 캠페인

참고문헌

- 강구섭(2009). “독일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제 15권 2호, pp.29-51.
- 고용노동부(2010). 「2010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2011). 「2011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 김석향·김미주·최영실(2009).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연희 외(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 김화순(2010).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pp.31-57.
- 서윤환·이용화(201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북한인권정보센터
- 이금순 외(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 장명선·이애란(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장미혜·김난주·김화순(2010). 「탈북여성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대석·김화순·박영자·이혜경·강금봉(2010).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통일부(2009).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 통일부(2010).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 통일부(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 행정안전부(2010). 「2010 행정안전백서」
- 행정안전부(2011). 「행정안전부 업무추진계획」
- 허선행·임강택·서윤환(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Abstract

Vocational training for employment support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Sung-Jung Park
Mi-Kyong Moon
Myung-Sun Jang

Currently,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has exceeded 20,000, more than 70% of whom are female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expected to rise, and majority of them are forecasted to be women. As a result, in order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female refugees and promote their self-reliance, their vocational capability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aining and employment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nd present improvement policies.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have some difficulties in common with career-discontinued women or thos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ut are faced with more serious hardships. As they move to South Korea, they lost their careers in the North, even experiencing cultural

gap. Also they have experienced emotional instability, lack of job skills and confidence, and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etc. Those who don't have families in the South have gone through more hardships in childcare. In the labor market, female refugees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s, as well as discrimination in gender and age.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such issue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perly cope with difficulties that female refugees have experience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eeds to more actively participate in HR project for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Comprehensive services such as helping home affairs and providing information they need as well as job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hould be effectively offered. Also, education for communicating and cultural understanding abilities,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adaptation in work place and society, should be provided as a long-term project.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4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2011년 8월 29일 인쇄

2011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407-0 93330

<정가 9,000 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 3156. 7000 FAX 02. 3156. 7007 <http://www.kwdi.re.kr>



ISBN 978-89-8491-407-0